

2018 ANNUALLY 제34호

속초문화

Sokcho Culture Journal



©김영복



청년 일자리 살리고

청년 농업인 창업 컨설팅 / 교육, 자금 및 판로지원



금융생활 살리고

첨단 모바일 금융 플랫폼 /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살리고

전국 2,200여 개 하나로마트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금 농협은



농가소득 높이고

영농지원 가격인하 / 영농기술 향상 및 수출지원



먹는 즐거움 높이고

품질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지원 및 유통



농업가치 높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 함스테이마을 육성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싶어요

농촌으로 떠나는 여름휴가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체험, 자연 속 편안한 힐링, 깨끗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올 여름 휴가는 우리 농촌으로 떠나보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지부장 **마상일**
농정단장 **김민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소초문화

2018 · 제34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005 권두시 속초예찬(禮讚) - 탁명원

006 지상갤러리

이민성(李民成) 시 - 이덕우

바다향기로 - 정봉재

008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011 속초문화원 365

012 2018 효행청소년 시상

01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014 제26기 향토문화학교

016 2018 강원어르신문화대축전

018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019 1시군 1문화행사

020 2018 강원문화대축전

021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022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023 제53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설악산 소나무 당제

024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025 2017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레벨업 프로젝트>

026 지역관광 아카데미 및 청년협의체 기획운영

028 2018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030 2018 문화유산교육

031 2017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레벨업 프로젝트>

032 문화올림픽 콘텐츠 사업



표지작품 김영복

속초문화

題字 해풍 김광희



- 033 2018 문화유적답사
- 034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 035 인물산책
- 036 신화식품 문은희 대표
- 040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043 기획 1
- 044 속초축제에서의 거리 퍼레이드 - 양용석
- 051 속초관광 활력사업 제언 - 이수영
- 056 속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 김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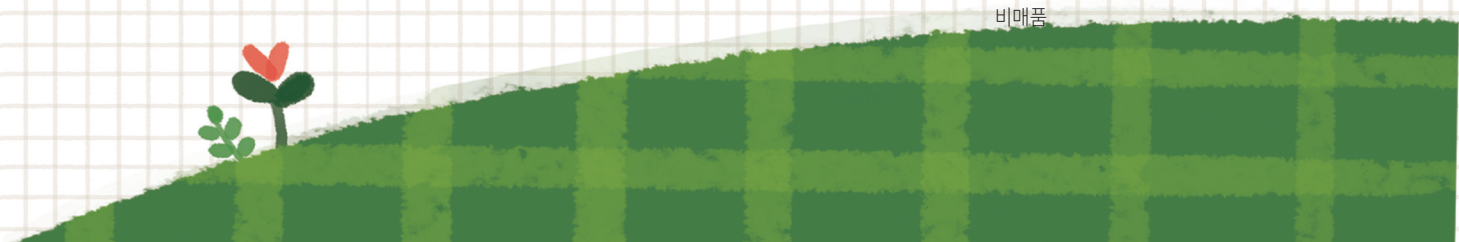
- 067 기획 2
- 068 창간 30돌 앞둔 향토지 '설악신문'의 지나온 길 - 장재한
- 075 지역성을 살린 전시와 문화체험 공간 속초시립박물관 - 정종천

- 095 특집
- 096 속초 갯배 1백년의 역사를 찾아서 - 엄경선
- 109 속초 실향민 문화 현황과 속초사자놀이 - 김성하

- 121 제30회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 122 2018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우)24821 속초시 번영로 155
 TEL.(033) 632-1231, 639-2439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양 용 석
 진 행 : 정 호 준
 발행일 : 2018.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고객 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약속을 지키는 든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신화식품

www.sinhwafood.com

대표 **문은희**

강원도 속초시 사진용촌길 23 TEL : (033) 635-3459

속초예찬(禮讚)

속초, 하면 생각나는 것은
먼저, 바다와 산이다
앞에는 동해바다
뒤에는 명산(名山) 설악산, 울산바위
거기에 척산온천,까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이르기를
화랑(花郎)들의 단전(丹田)치기 하는 소리가 산너머까지
들렸다고 전하는 아름다운 호반의 영랑호
청룡(靑龍)과 황룡(黃龍)이 살았다는 전설(傳說)의 청초호
누가 봐도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

선택된 명승지,
천혜의 땅이다

나는 속초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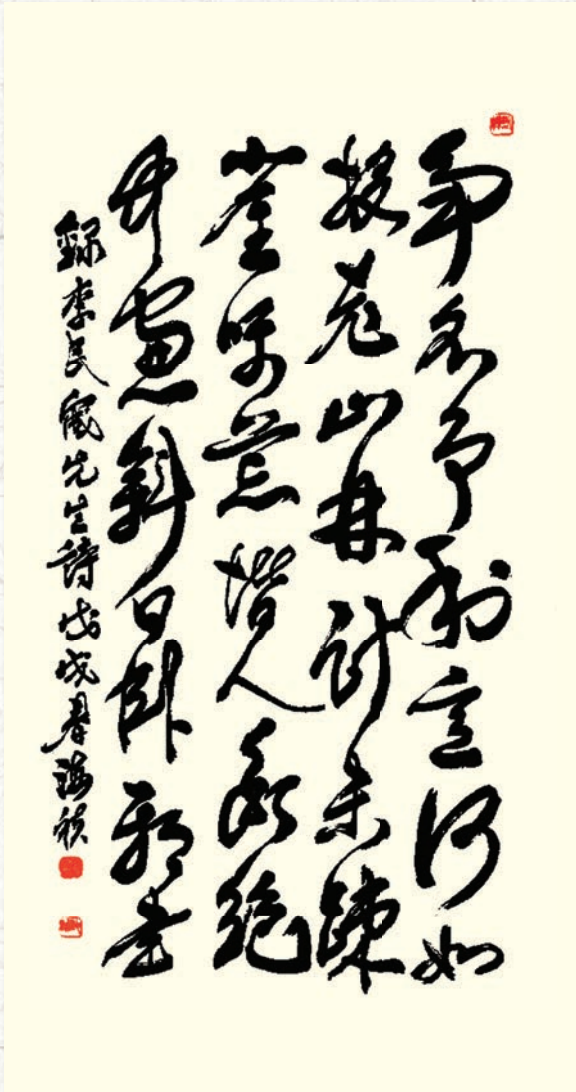
* * * * *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념(理念)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제세이화(濟世理化)는
선택된 이 곳, 속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탁 명 원(卓明源)

2013년 『환경문학』 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복지사
국학석사
민주문학, 한맥문학 회원
속초문화원 이사



명에 이익 다뤄보니 어떠한가
 늙어 산힘에 깃드니 뜻 성글지 않도다
 거친 뜰 참새 짓고 사람은 없어
 대창 빛긴 해에 누워 책을 보노라

이민성(李民成) 시



해정 이덕우

- 대한민국 서예대상전(전국학원연합회) 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 강원미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술대전 초대작가
- 강원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 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해정서예연구원 원장
- 속초시 중앙로 74 해정서예연구원

M.010-5376-1314



외옹치 바다향기로 • 29.7×42cm • 잉크, 과슈

정봉재

- 강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 •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졸
 - '86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 '84 신라미술대상전 (서라벌문화회관)
 - 강원미술대전 초대추천작가전 • GAF 2012 - 특별전 • 도시의미래 - 도시해킹전
 - 강원미협전 • 영남조각회전 • 환동해국제미술교류전
 - 현. 속초예총 회장,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15, 107동 1704호
M. 010-6374-0543 E-mail. ssaapa@daum.net





속초의 문화경쟁력을 위한 지역문화 가치창조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책머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속초문화원 연간지인 『속초문화』가 34호 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은 속초문화원이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가치를 위해 애썼음은 물론 ‘문화시민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등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 한 해로 기억합니다.

문화마을 사업이 시작된 원년이기도 했습니다.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로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상도문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지역을 지속가능한 문화마을로 성장 견인하려 하는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우리 속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가 뿌리 내린 도시로 거듭나는 데에 있어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속초문화 34호』에는 다른 무엇보다 기획·특집 글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실어봅니다.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 각각의 전문성들을 살린 글들입니다. 깃배

100년의 역사, 속초실향민 문화인 속초사자놀이, 속초 갈래길, 속초관광, 축제 거리퍼레이드, 창간 30주년을 앞 둔 지역신문인 설악신문의 발자취, 우리 속초의 지역성을 살린 속초시립박물관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두가 우리 속초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발전하는데 있어 소중한 연구이자 자료들입니다.

인물산책에는 3대로 이어지는 식품사업을 통해 속초음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분을 찾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도 저희 속초문화원은 향토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 속초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힘을 쏟으려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향토사연구」는 속초라는 지리적·시간적 공간 안에서 뿌리내리고 삶을 공유하며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속초사람 곧 속초공동체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고유한 미래상을 발견함으로써 속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실천 활동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로 '대포항 개항 110주년, 대포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대포 지역을 대상으로 '대포변천사' 기록물 발간 사업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속초시립박물관, 도서관, 민간문화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체계구축에 나서 문화도시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34년 성상의 「속초문화」지가 속초문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알차고 생산적인 연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 댁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NH 속초농협

진심을 팔다 안심을 살다 

속초농협은 우리지역 향토기업으로써,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직원 일동 -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엑스포점 033)630-1500~1501
중앙시장점 033)633-1508

속초문화원 365



- 효행청소년 시상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 제26기 향토문화학교
- 강원 어르신문화대축전
-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 1시군1문화행사
- 강원문화대축전
- 속초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 지역콘텐츠개발지원사업
- 지역관광아카데미 및 청년협의체 기획운영
-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2018 문화유산교육
- 문화올림픽 콘텐츠 사업
- 2018 문화유적답사
- 201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2018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이 매년 진행하는 효행청소년 시상은 관내 16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효행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세태이기에 이번 시상을 통해 잠시나마 효행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우리 청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 2018 효행청소년 수상자

번호	학교명	학년반	성명
1	속초초등학교	6-2	심아영
2	영랑초등학교	1월11일 조기졸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중앙초등학교	6-1	박소연
4	청호초등학교	6-친절반	임성준
5	교동초등학교	6-5	정지민
6	대포초등학교	6-1	우성결
7	온정초등학교	6-1	신아영
8	조양초등학교	6-1	김유민
9	설악초등학교	6-초롱꽃반	김현진
10	청대초등학교	6-1	마혜림
11	소야초등학교	6-2	차유천
12	청봉초등학교	6-4	최선웅
13	속초중학교	3-1	전지민
14	설악중학교	1월12일 조기졸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5	속초여자중학교	3-2	손채린
16	설악여자중학교	3-5	선연후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올해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향토사와 여름방학 예술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향토사 강좌는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위스타트 속초마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으로는 속초문화원 대표 문화예술강좌로 자리잡은 ‘영화야놀자’, 작년에 이어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를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 향토사 강좌

향유기관	향유인원	진행강사	회차	비고
위스타트 속초마을	609명	2명	40회	

• 여름방학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비고
여름방학문화강좌 ‘영화야 놀자’	8월1일 ~ 8월10일 09:30 ~ 12 :00	문화사랑방	128명	2명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	8월1일 ~ 8월10일 13:30 ~ 15:30	문화사랑방	105명	2명	



제26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 교육강좌로 올해 26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는 '고전무용, 노래교실, 민요교실, 서예교실, 장구교실, 사물중급, 통소교실, 한지공예 등 8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2일 ~ 24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전시회를 가졌고, 11월 29일 수료식 및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 문화학교 일정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고전무용	목	13:00~15:00	문화사랑방	10명	김민희
노래교실	화·금	13:00~15:00	문화사랑방	46명	최봉하
민요교실	수·금	13:00~16:00	갯마당연습실	21명	김현섭
서예교실	화·금	10:00~12:00	문화사랑방	14명	김동하
장구교실	월·목	13:00~15:00	갯마당연습실	10명	임효건
사물중급	월·목	10:00~13:00	갯마당연습실	10명	임효건
통소교실	화	15:00~17:00	문화사랑방	10명	김태희
한지공예	수	09:30~12:30	문화사랑방	20명	이진향

■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일 시 : 2018년 11월 22일~24일/ 11월29일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제1전시실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및 내외빈 등 700명
- 전시회 : 11월 22일~24일 / 한지공예, 서예 작품전시
- 수료식 및 발표회
: 11월 29일 13시 / 노래교실, 장구교실, 민요교실, 통소교실, 고전무용, 사물중급

2018 강원 어르신 문화대축전

속초문화원 문화자원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은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주최로 다양한 공연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까리따스요양원, 성암노인복지센터 등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동아리 활동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 사업명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설악문화나눔친구들’
- 기간 : 2018.4~11
- 장소 : 속초문화원,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성암노인복지센터 등
- 내용 : 워크숍 10회, 봉사활동 20회, 특강 4회, 현장학습 1회, 평가회 1회





- 워크숍(10회)
 - 일시 : 4월~11월
 - 장소 : 문화사랑방 외
 - 대상 : 봉사단 30명
 - 내용 : 봉사활동 내용 및 진행방향 공유,
- 문화예술 봉사기술 습득

- 봉사활동(20회)
 - 일시 : 4월~11월
 - 장소 :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성암노인복지센터 등
 - 대상 : 봉사단 30명
 - 내용 : 민요, 품바, 사물놀이, 동화구연 등



- 특강(4회)
 - 일시 : 7월~11월
 -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 대상 : 봉사단 30명
 - 내용 : 인지학습, 민요, 장구, 댄스 등



- 현장학습(1회)
 - 일시 : 2018. 9. 28.
 - 장소 : 춘천 인형극장 대극장
 - 대상 : 봉사단 30명
 - 내용 : 수타사, 춘천인형극제
“으랏차차 순무 가족의 커다란 순무”
관람 및 현장학습



- 평가회(1회)
 - 일시 : 2018. 11. 15.
 -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봉사단 30명
 - 내용 : 2018 설악문화나눔친구들 활동 및
문제점 토의, 2019 사업방향 논의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사진, 영상, 구술, 자료집, 전시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속초의 근대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포항 개항 110주년, 속초 근대교육의 시작인 대포초등학교 1백년을 맞는 해이기에 역사를 기리는 작업으로 대포항의 역사 문헌자료조사,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의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사진 아카이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건축물을 통해 도시역사의 가치를 되새겨보기 위한 전문가 포럼, 속초문화톡톡 등 지역변천사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18. 3 ~ 12
- 참가자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 15명, 시민위원 26명, 사진작가, 화가 등 지역예술인 다수

■ 내 용

- 예술아카이브 : 사진, 어반스케치
- 도시변천사 발굴 및 기록 : 속초 대포항의 역사
- 도시변천사 자료집 발간 : 속초의 역사와 이해
- 전문가 포럼
11. 26 : 건축전문가와 떠나는 “속초도시탐방”(김재홍 센터장 한국문화유산 연구센터)
- 속초문화톡톡
1차(6. 19) : 속초음식생활사(엄경선 향토사위원)
2차(7.17) : 청호동에 가본적있는지 (김종헌 시인)
3차(8. 21) : 한번에 만나는 속초변천사 (정상철 향토사위원)
4차(10.16) : 지도속의 길(김만중 향토사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공연하는 1시군 1문화행사 사업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속초사자놀음을 모티브로한 창작공연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런갯마당, 속초시립 풍물단, 신천무용단 등 예술단체와 지역예술인이 함께 모여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중인 강릉아트센터에서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쳐 많은 호평을 받았다.

1시군 1문화행사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행사 작품내용

- 작 품 명 : 청사초롱 불 밝혀라
- 참 가 자 : 공연단 : 30명, 스텝 15명
- 작품소개 : 속초사자와 북청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청사초롱 불 밝혀라는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형인 북청사자 놀이와 풍물놀이가 작품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가.무.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희극 형태의 작품이다.

실내 공연장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장에서도 효율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극적인 대사를 최소화하고 전통연희적 요소(사자춤, 풍물놀이, 전통민요 등)를 주요 표현 양식으로 하여 세대를 뛰어 넘어 공감하고,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작품으로 창작.

■ 공연활동

- 행사명 : 2018 평창 문화올림픽
- 일시/장소 : 2018. 3. 17. / 강릉아트센터



2018 강원문화대축전

- 2018 강원문화대축전
- 일 시 : 2018. 11. 21
- 장 소 :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강원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강원문화대축전 이 11월 21일 영월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었다. 강원(興),기(技),예(藝)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내 18개 시·군 문화원·문화학교가 올 한해 생활문화, 문화예술 활동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축제의 장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향토문화 특별공연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으면 본원은 문화유공자로 민요반 김현섭 강사가 강원도의회 의장상을 노래교실 최봉하 강사가 강원도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사자놀음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연단은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 시작으로 함남도민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등 8회 공연을 실시하여 속초사자놀음의 재미와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5회 공연연습을 가졌다.

속초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연습
 - 일 시 : 12월 ~ 12월 / 총 25회
 - 장 소 : 속초문화원 / 속초종합예술원
 - 참가자 : 사자놀음보존회 30명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

일시	행사명	행사장소	주관처	관람객
3.02	정월대보름 맞이 걸립굿	청호동 일대	속초문화원	300
7.20	시립박물관 야간개장 공연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150
7.28	시립박물관 야간개장 공연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150
8.17	시립박물관 야간개장 공연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150
8.18	시립박물관 야간개장 공연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150
9.16	함경남도 도민회 한마당 큰잔치	엑스포 대 운동장	함남도민회	400
10.13	설악문화제 공연	서독약국 앞(행사장)	축제위원회	400
11.15	찾아가는 지역예술 공연	시립박물관	속초문화원	150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속초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시민들로 구성된 보존회는 연간 5회 공연연습과 다양한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붉은대게 축제와, 제53회 설악문화제 행사 초청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 논에서 모심기 소리 공연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도문농요 연습 및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2018 생생문화제 및 각종 공연연습 장소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018 속초도문농요 공연활동

공연 일시		내용	장소	관람객
1회	2월 9일	2018 붉은대게 축제 공연	이마트 앞 광장(행사장)	300명
2회	5월 11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1차)	상도문 마을 논	60명
3회	10월 14일	2018 설악문화제 행사	서독약국 앞(행사장)	300명
4회	11월 15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2차)	설악초등학교	100명



제53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설악산 소나무 당제

설악문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 설악제례를 올해도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9월 29일 9시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을 시작으로 10월13일 10시 영신제, 14일 오후 4시 송신제(서독약국앞 특설제단)를 진행하였다.

올해 제례는 입지조건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악제례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였다. 또한, 작년에 이어 설악산 소나무 당제를 재현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당선된 이 행사는 설악산 주민들과 함께 속초제례위원이 협력하여 설악동과 속초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9월 29일	9:00~10:00	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
영신(산신합동)제	10월 13일	10:00~11:00	서독약국 앞 특설제단
송신(산신합동)제	10월 14일	16:00~17:00	서독약국 앞 특설제단
설악동 소나무 당제	10월 17일	07:00~08:00	설악동 소나무 앞 특설제단



상도문 오감행복여행 문화마을

- 상도문 문화방상회 진행
 - 일 시 : 5월 ~ 8월 / 총 12회
 - 장 소 : 속초도농농요전수회관 및 상도문 마을일대

속초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공모로 선정된 상도문 문화마을사업(2018년~2020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화마을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마을브랜드 개발 등 문화사업 전개를 통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에는 상도문 문화마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속초문화기획인 학교 “상도문 문화방상회를 12회 운영하며 도농농요전수회관에서 마을주민과 문화활동가 대상으로 다채로운 강의 및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답사 등 마을고유 문화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 정	프로그램 단계	세부 프로그램	강사	시간	참석인원
1회차 5월28일(월)	여는 강의	문화마을로 가는 길	추미경	19:00~21:00	45명
2회차 6월04일(월)	문화마을의 이해	문화마을 사업 사례와 토론	모세환	19:00~21:00	29명
3회차 6월11일(월)	문화주제	추억 - 나의노래	최종현	18:00~21:00	30명
4회차 6월18일(월)	문화활동	나의 부엌이야기	박정근	19:00~21:00	34명
5·6회차 6월28(목)~29일(금)	선진사례 답사	담양 창평 삼지내 마을	(사)문화다움	1박2일	21명
7회차 7월02일(월)	문화공간	공간의 추억	염기명	19:00~21:00	32명
8회차 7월09일(월)	문화마을 추진방안	문화마을 만들기 1	권순석 김영현	19:00~21:00	29명
9회차 7월16일(월)		문화마을 만들기 2	모세환 김명신	18:00~21:00	31명
10회차 7월일(월)		문화마을 만들기 3	추미경	19:00~21:00	30명
11회차 7월23(월)	우리가 만드는 문화마을	문화방상회 마무리 네트워크 파티	(사)문화다움	19:00~21:00	38명
12회차 8월13일(월)		운영협의회 사전 준비회의	(사)문화다움	19:00~21:00	8명

2017 ~ 2018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레벨업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속초문화원의 ‘어촌체험마을을 VR(가상현실)·AR(증강현실)로 탐험하는 게임마을로 레벨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2억5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 7월말 프로젝트 완료가 되었다. 이번 과제는 기존 콘텐츠와 VR·AR 등을 융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최초의 게임마을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위해 VR콘텐츠 개발업체인 (주)와바다다(대표 이광표)와 AR 콘텐츠 개발업체인 퍼즐스페이스(주)(대표 신지섭)가 속초문화원과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하였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엑티브한 어촌관광을 체험하도록 해 문화적, 교육적, 오락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고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켰다.



지역관광 아카데미 및 청년협의체 기획운영

지역 내 관광주체의 발굴 및 기존 관광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청년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지역관광아카데미는 문화관광기획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기획과정으로 진행된 12회차 이론교육과 특강 2회, 그리고 현장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관광업종사자 분들에게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형태의 아카데미가 진행된 것이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게 되었다.

• 지역관광아카데미 교육일정

일정	강의내용	강사명
1월 30일	• 대한민국 테마10선과 강원도의 테마관광의 발전방안	권순석대표 (문화컨설팅바라)
2월 1일	• 지역 문화관광기획의 필요성 • 현장 전문가 특강 I	김영현대대표 (유알아트)
2월 6일	• 현장 전문가 특강 II	설재우대표(씨리얼)
2월 8일	• 속초의 문화관광 콘텐츠 분석	엄경선대표(설악닷컴)
2월 13일	• 현장 전문가 특강 III	권상구이사 (시간과 공간연구소)
2월 20일	• 현장 전문가 특강 IV	전고필 감독 (대인예술시장)
2월 22일	• 현장 전문가 특강 V	김현경이사 (파랑달 협동조합)
2월 27일	• 지역을 이야기 자원으로 만드는 콘텐츠 전략	추미경 대표이사 (문화다움)
3월 6일	• 협의체구성	
3월 13일	• 디지털마케팅 전략 I	이기용이사(블로그 마케팅전문기업 VSM)
3월 15일	• 디지털마케팅 전략 II	김민수 사진작가
3월 17일	• 협의체 워크숍	이선철대표(감자꽃스튜디오) 김현경이사(파랑달협동조합)
3월 20일	• 디지털마케팅 전략 III	이철 대표((주)인터섹션)
3월22일~24일	• 국내연수(관광기획 우수지역)	
3월 27일	• 도시문화콘텐츠성공사례 • 협의체 발표 및 수료증 수여	홍주석대표(어반플레이)



2018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국악심화교육

• 교육기간 : 2018. 3 ~ 12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청호초-속초사자놀이’, ‘온정초-속초도리원농악’, ‘설악초-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문화자원과 ‘대포초-국악관현악단’, ‘청봉초-창극’, ‘속초초-취타대’ 같은 다양한 국악 장르를 관내 6개 초등학교 및 ‘청소년 풍물동아리-뉘누리’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강사	인원	교육내용	비고
청호초등학교	김사라	속초사자놀이	김청익	19명	사물	
			김현섭		민요	
			임희영		통소	
			임희영		속초사자	
속초초등학교	박준석	취타대	김청익	41명	대취타편성과 용고 나각, 나발교육	
			임희영		태평소	
청봉초등학교	김민지	창극	김현섭	25명	민요	
온정초등학교	윤혜진	도리원 농악	임효건	38명	도리원농악 전반, 소고 및 상모	
		박준영				
설악초등학교	정광빈	속초도문농요	김부영	22명	도문농요 및 농사놀이	
		유인혜				
대포초등학교	곽미서	국악관현악	박치영	48명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대포초등학교



설악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청학예술제



은정초등학교



청봉초등학교



청봉초-동구리경창대회



청호초등학교



청호초-동구리경창대회



청호초-발표회

2018 문화유산교육

속초문화원은 청소년들이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답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문화유산 1건에 관해 한국사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하는 방식과, 속초라는 지방 향토사에서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관내 초·중학교를 찾아가 문화유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때론 현장답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2018 문화유산교육 사업 내용

사업기간	교육횟수	학 교	교육 장소	향유인원
4월	2	영랑초등학교	상도문 오윤환생가, 학무정	40
5월~6월	2	조양초등학교	조양동 선사유적지	52
5월	7	속초중학교	속초 중학교 각 학급	165
6월	7	교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각 학급	176
7월	4	청봉초등학교	청봉초등학교 각 학급	92
9~10월	4	위스타트	위스타트 설악산 신흥사	100
10월	5	청대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각학급	160
11월	7	속초중학교	속초중학교 각 학급	165
11월	3	위스타트	양양선사유적박물관 오윤환생가, 학무정	60



문화올림픽 콘텐츠 사업

2018 크루즈 관광, 동서고속화 철도 등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문화콘텐츠 속초도리원농악대를 운영·양성 하였으며, 문화시민학교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춤추는 시민 신나는 속초, 행복한 노래교실, 전통매듭과 보자기, 무료한 일상의 난타, 두드림' 강좌 등 5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학교 발표회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mbc전국시대 방영 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답사를 올해 네 차례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향토문화학교 수강생들과 6월 20일 제천의림지, 박달재 등 제천 일대를 탐방하였다. 2차 답사는 시민문화학교 수강생들과 6월 25일 역시 제천의림지, 박달재를 비롯한 제천 일대를 탐방하였다. 3차 답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동용궁사 비롯한 부산일대 및 원성왕능 등 경주 일대를 탐방하였다. 4차 답사는 서울식물원 외 서울일대를 탐방하였다.

2018 문화유적답사

회차	일시	장소	참가인원
1차	6월 20일	제천 일대	80명
2차	6월 25일	제천 일대	80명
3차	7월 2일~4일	부산, 경주일대	40명
4차	12월 11일	서울일대	40명



201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올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지역대표 문화자원인 실향민문화를 알리기 위해 결성된 공연단 '돈돌라리요'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공연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공연단 활동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설악문화제 등 관내 외 지역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였다.

■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공연단 교육(30회)
 - 기간 : 2018년 4월~10월
 - 장소 : 문화사랑방 외
 - 대상 : 돈돌라리요 공연단원 30명
 - 내용 : 공연작품 제작 및 문화활동가 양성교육

■ 공연 활동 (10회)

- 대상 : 설악문화제 등
- 공연 횟수 : 2018년 2월~10월, 총 10회
- 내용 : 2018 붉은대게축제, 실향민문화축제, 속초시립박물관,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설악문화제 공연 등




“인물산채”

- 신화식품 문은희 대표

-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서
살면 삶이 더 풍요롭고
재미있어집니다... 타인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죠...”

- 신화식품 문은희 대표 -

편집부

속초의 대표적인 먹거리들을 살펴보면 '속초=동해바다와 설악산'이라는 지정학적인 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해안 수산물들을 바탕으로 한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지역민뿐만 아니라 속초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이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까지 수출되고 있어 연간 막대한 물량이 소비되고 있다. '젓갈'이 그 중 하나이다.

속초 젓갈사업의 대표 주자인 '신화식품 문은희 대표'를 만나 경영 철학과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속초시 사진용춘길 23을 주소로 둔 신화식품은

속초고등학교 초입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공장과 사무실이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바쁜 외중에도 문은희 대표가 반갑게 맞아 주셨다.

#젓갈 사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원래 어머님께서 젓갈을 만드는 원료 장사를 하셨어요. 명태에서 나오는 알과 내장(명란, 창란 등) 같은 원료를 당시 오양수산에 납품하기도 하셨지요. 옛날 노가리 촌이라 불리던 중앙초등



학교 부근에서 직접 명태 덕장을 운영하셨고 ...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덕장 일에 일손을 보태고 나서 학교에 등교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 친정을 잠시 떠나 있다가 우리 딸애가 8살 때 다시 고향인 속초로 돌아왔지요. 벌써 26년이 되었네요 ... 2007년에 제 이름으로 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과 연계하면 50년이 넘는 셈이죠.”

#사업체 규모가 상당히 크신데 ... 회사 경영에 있어 특별한 비결이나 철학이 있으신지 ...

“저는 처음부터 원료수매 보다 양념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냉면에 들어가는 명태회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는 빙초산을 사용했지만 저는 몸에 좋은 식초를 넣어 만들었어요. 제조 단가는 올라가지만 몸에 좋은 먹거리가 우선이죠 ... 10년 전 쯤에는 심층수를 사용해 만든 젓갈을 특허내기도 했지요 ... 젓갈 원료부터 완제품이 나오는 모든 공정을 직접 운영하고 살피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화식품의 장점이자 타사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셈이죠 ... 현재는 10여개 종류의 젓갈을 서울의 백화점들을 포함한 국내 시장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수출하고 있어요. 연간 100억에서 많게는 160억 정도 매출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자녀분들 이야기 잠깐 할까요 ... 슬하에 자녀분이 어떻게 되는지 ...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남 1녀를 두고 있어요 ... 첫 째가 딸입니다.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서 회계 일을 맡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는데 그곳에서 대학을 진학했다가 다시 국내 대학으로 와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20대부터 집안일을 도와서 그런지 이 일이 익숙하고 좋답니다 ... 벌써 10여 년 째 제 옆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참 대견스럽고 감사한 일이지요. 사업적으로도 그래요.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니 앞으로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인 아들도 올해 대학 졸업반인데 벌써부터 틈틈이 회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학도라 들었는데 ...

“아, 네 ... (웃음) 현재 경동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2학년이에요. 81년에 속





지원봉사 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면서(이사, 여성특별자문위원장)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배려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었고 ... 제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입었잖아요 ... 사회 환원 차원이랄까 ...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공부와 사업

초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공부를 쉬었어요 ... 하지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 우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거든요. 게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새로운 사업적인 아이템도 생기기도 하고요 ... 또 사회복지학도가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공부외적인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살면서 중요한 가치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고 ... 속초

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속초문화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 하고 계신 식품사업과 문화와의 (본인이 생각하는) 관련성이나 연계성이 있다면 ...

“음식도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잖아요 ... 우





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어
요. 몸에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해요
... 또 명태회 같은 음식은 우리 속초만의 음식이
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 속초 문
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 제
가 아마 이 명태회를 처음으로 전국으로 확산시
킨 기여자일수도 있어요(웃음) ... 음식뿐만 아니
라 다른 분야에서도 옛 것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
재의 것과 잘 융합을 한다면 바람직한 우리만의
문화가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고 ... 문화 분야에
서 그런 노력들과 관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속초시가 정책적으로 음식이나 식품 분야의 명인
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속초의 음식들이 전국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을 세울 수 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우리 속초의 음식 문화를 세계적
으로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지금의 신화식품을
일군 문은희 대표. 자녀들도 가업을 잇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는 말속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이 짙게 묻어있었다. 머지않아 속초에도 3대째
이어오는 100년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기대를 가
져보았다. 현재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 강원무
역창업연구원 고문, (전)강원도 특산물수출협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속초 문화가 강원도,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신화식품 문은희 대표와의 인터뷰는 짧았지만 적
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문 대표만이 지닌
음식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삶의 철학이 그러했
다.

“저는 ... 사업도 공부도 열심히 ... 재미있게 보
내려고 노력해요 ...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서 살
면 삶이 더 재미있습니다 ... 타인에게 항상 감사
하며 살아야죠 ... ”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신우근 회원

신우근 회원은 중국과의 문화예술 교류에 적극적인 참여와, 초·중등생 국악 교육을 위해 애쓴 공로로 문화예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되어 정선아리랑센터에서 열린 2018년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 윤장원 자문위원

윤장원 자문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민선 7기 속초시 '시민 중심 원탁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이영순 부원장

이영순 부원장은 지난 7월 3일 속초시 제8대 속초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정봉재 이사

속초문화원 이사이자 속초예총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분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봉재 이사가 지난 9월 15일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린 '2018 강원예술인대회'에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20일에는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2018 강원예술인의 밤, 제8회 강원예술상 시상식'에서 강원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 김인섭 문화마을사업 매니저

전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난 11월 2일 지역 언론인들의 축제 '2018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동상(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창간 28주년을 맞아 지난 5~8월 총 8회에 걸쳐 '속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기획 기사를 게재, 지역신문이 지역밀착형 의제설정을 통한 지역혁신의 마중물 사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한명옥이사

한명옥 이사는 지난 2004년 전통타악연구원 “두두리”를 창단하여 국악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대학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 석사를 취득한 후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등 속초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속초시장상을 수상했다.



■ 최봉하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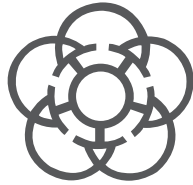
최봉하 회원은 속초문화원 노래강사이자 문화전문예술 인력으로 전통문화 발굴과 보급에 앞장서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여 강원도지사상과 속초시장상을 수상했다.



■ 김현섭 회원

속초문화원 회원이자 민요교실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로 속초의 대표 전통문화인 속초사자놀이 소리파트를 담당하였고, 지역 초등학교에 국악전수 교육을 실시·운영하여 전통문화 진흥에 일익을 담당하여 강원도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지역문화 창달로

속초의 미래를 열어가는

속초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자료(도서, 음반, 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비

- 연 50,000원
- 문의 : TEL. 033-632-1231 / FAX. 033-632-1241
www.sokcho-culture.com

“ 기획 1 ”

양용석

- 속초축제에서의 거리퍼레이드

이수영

- 속초경제의 실태조사 「속초갈래 길」 사업

김인섭

- 속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





속초축제에서의 거리 퍼레이드

-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소고(小考) -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본론
 - 1. 거리퍼레이드의 일반적 성격과 해석
 - 2. 설악문화제에 담긴 거리 퍼레이드의 성격과 의미
 - 3. 거리 퍼레이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提言)
- II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지역 축제에 있어 거리 퍼레이드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규모나 의미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가 지니는 특징 및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속초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속초설악문화제’에서도 거리 퍼레이드는 행사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9월 말 ‘설악제례’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축제는 10월 초·중반 까지 진



러시아 무용단(속초축제위원회 제공)

행되며, 이 기간 동안 설악산 인근과 시내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산악페스티벌’, ‘속초시민한마당’ 등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¹

2018년 기준,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 전야제부터 마지막 날까지 총3회(회당 40여분 소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행정단위인 동(洞)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과 성인들로 이루어진 40여개 단체, 총 4,000여 명이 참여하여 규모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축제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였다.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특징지을 수 있는 복식을 갖추고 특색 있는 행위를 통해 관람객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예술을 조화한 하나의 ‘공연예술(performance)’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속초설악문화제 성격에 대한 해석과 재평가에 대한 의견이 지역 내에서 분분하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축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거리 퍼레이드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고찰(考察)이 필요하다고 본다.

1. 2018년 제53회 설악문화제의 경우 10월 12~14일 사흘간 속초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II. 본론

1. 거리퍼레이드의 일반적 성격과 해석

퍼레이드(PARADE)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축하행사 따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행진하는 것. 또는 그 행렬”, “행진(march)이라고도 하며, 종종 특별한 의상, 음악연주, 큰 풍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보통 무언가를 축하하기 위해 행해진다.” 등으로 설명된다. 미국 언어·문화 사전인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 “Parades are a regular feature of American celebrations from the smallest towns to the biggest cities. They use. include MARCHING BANDS, MAJORETTE, FLOAT, and well-known people who ride in big cars waving and smiling.; 역) 퍼레이드는 미국 축제에 있어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가장 큰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행사이다. 퍼레이드에는 보통 밴드 행진과 악대장, 그리고 풍선들이 포함된다. 유명인사들이 커다란 차에 올라타 가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한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군대 점호에서 ‘열병(閱兵)’을 뜻하는 단어가 시민들이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목적으로 참여하는 지금의 퍼레이드로 성격이 변화한데에는 미국 문화의 역할이 크다.

미국에서 퍼레이드가 시민적 행사로 치러진 시발점은 1825년 이리 운하(Erie Canal)²의 완공

2. 19세기 초 대서양 연안과 앨러게니 산맥 서부 지역을 잇



속초시립풍물단(속초축제위원회 제공)

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에서 있었던 행진에서이다. 이 퍼레이드가 시민적 행사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주된 이유는 과거의 퍼레이드와는 달리 광범위한 계층의 집단들을 보여주는 ‘이동 전시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성격은 이 후 오랜 기간 동안 퍼레이드의 기본적인 형식을 제공하였다. 이전의 퍼레이드는 보통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사례로 18세기 프랑스의 퍼레이드(행진)는 “지방 관리의 위계질서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지위로 한정되었다.”³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거리 퍼레이드는 문화에 대한 다방면의 고증을 제공한다. 즉, 어느 하나의 가치에 대한 표현에 있어 언어가 충분은 운송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대호에서 허드슨 강을 거쳐 뉴욕 시까지 이어지는 운하를 1825년에 완공하였다.

3. Robert Darnton,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New York, 1984), pp. 116-124.

히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부분과 심미적(審美的)인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말 뿐만 아니라 행동도 기록할 수 있고, 퍼레이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어떤 것이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⁴는 퍼레이드를 “공공 행사에서 보다 친숙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 그 행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표현하였다.⁵

거리 퍼레이드는 행진 자체로서의 행위나 의미

4. 클리퍼드 제임스 기어츠(Clifford James Geertz, 1926~2006). 미국의 인류학자. 미국에서 3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인류학자로 평가 받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활동함. 상징인류학의 발전에 강한 지원과 영향을 줌. ‘상징인류학’이란 공적인 의미를 세우는데 있어서 상징들의 역할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학문임.

5. Lynn Hunt(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그 이론과 실제*, (소나무, 2000), PP. 192-196.

보다는 하나의 '상징(Symbol)'적 역할을 수행한다. 상징적 역할의 사례는 다양하다. 먼저, '공식적 집단의 동질성'을 부각시키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거리 퍼레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인종·종교·직업·마을' 등의 단위로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깃발이나 복장들을 단위 별로 통일함으로써 집단의 동일성과 유대감을 자기 자신들에게 혹은 가두(街頭)에 모여 있는 대중들에게 암묵적으로 전달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 사회·문화에 대한 저항 또는 반대 표식의 수단으로 거리 퍼레이드를 이용한다. 과거 미국에서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퍼레이드(1910년대)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까지 '여성 참정권'은 여성 단체들의 주요한 목표였다. 여성 투표권이 있어야 남성들과의 균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을 획득을 하였지만 1960년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을 통한 여성권이 실질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미국 사회에서 만연하였다.⁶ 이 이외에도 아일랜드계를 중심으로 한 인종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퍼레이드, 동성연애자의 날(The Gay Pride Day) 퍼레이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 거리 퍼레이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에서는 '국가 및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세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거리 퍼레이드를 이용하기도 하

였다.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반공(反共)·반북한(反北韓)' 행사는 강제적 성격을 띤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를 동반하였다. 반면, 반정부 시위나 집회에 동반되는 거리 퍼레이드는 물리적으로 철저히 통제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의 대표적 언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도시 문화와 사회적 질서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를 서로 확인하고 인정하는데 있어 거리 퍼레이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설악문화제에 담긴 거리 퍼레이드의

성격과 의미

속초의 대표적인 축제인 설악문화제에서 거리 퍼레이드는 내용이나 규모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설악제의 가장 행렬로 시작된 거리 퍼레이드는 설악문화제 53년 역사(2018년 기준)와 그 궤를 같이 한다.

2018년 제 53회 설악문화제 거리 퍼레이드에는 동(洞), 청소년 동아리, 성인 동아리 등 40여 개의 단체, 연인원 4,000여명이 참여하였다. 축제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거리 퍼레이드는 속초 시내 중심가인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10,000여명으로 누적 합계 약 30,000여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퍼레이드를 구경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다.

참가 단체들은 축제 전 약 2~4주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거리 퍼레이드를 위한 예산은 약 1억 5천만 원이 세워져 지출되었다. 이 중 '러시아무용단, 세계민속무용단, 전문예술단' 등에 지급한 '출연료'가 전체 예산중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향, 조형물, 특수효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경비가 나머지 1/3을 차지하고

6. Luther S. Luedtke 편집(고려대학교 영미문학연구소 역), *Making America, 미국의 사회와 문화, 여성과 미국 사회*(William H. Chafe 저), (탐구당, 1991), pp. 344-372.



신천무용단(속초축제위원회 제공)

있다.⁷

속초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설악산’에서 축제의 이름을 가져온 ‘설악문화제’는 시기적으로 설악산이 단풍으로 가장 빛날 수 있는 가을에 열린다.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고대의 ‘제천행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삼산오악(三山五岳)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그 규모로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는데, 그 중 설악산이 소사를 지냈다.〉⁸

신라시대부터 제례(祭禮)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는 설악산은 명산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인식되어져 왔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기적 행사로 생

겨난 설악제는 1966년 시작되었다. 등반대회 행사가 함께 열렸고, 1976년 제9회 설악제 부터는 산신제를 독립시켜 제사를 지냈다. 현재는 설악문화제로 명칭이 바뀌어종합형 축제로 발전하였다.

설악문화제는 설악산에 제사를 지내는 ‘설악제례’를 행사의 시작과 끝에 배치한다. 축제의 명칭과 제례 의식(儀式)을 축제의 개막과 폐막에 위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설악문화제’는 설악산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성이 깊게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악산이 지니는 상징과 가치 등이 설악제가 태동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를 지금의 설악문화제가 계승한 것이다.⁹

현재 설악문화제에 포함된 ‘거리 퍼레이드’의 성격을 살펴볼 때, 설악산을 기념하거나 상징하기 위해 행해지는 퍼레이드와는 거리가 있다. 예

7. 속초 축제위원회 자료 제공

8. 김부식, 삼국사기, 卷 32 雜誌 第1祭祀條

9. 속초문화원 사무국 자료 인용

전 '설악제' 때 행해지던 '제등행렬'과는 달리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복색이나 도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18년 거리 퍼레이드의 경우 태권도 체육관인 '블랙벨트'는 태권 도복을, 댄스 학원인 '윤경숙 춤바댄스'의 경우 댄스 의상을, '속초 시립 풍물단'의 경우에는 풍물단 의상과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였다. 동(洞)단위 행진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이나 도구를 갖추고 행진에 참여하였다. 예전 도문동과 합쳐진 대포동의 경우 벼농사를 나타내는 농부의상에 소(牛)몰이를 하며 행진하였고, 동명동은 붉은 대게, 조양동은 선사유적지를, 영랑동은 오징어잡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복색을 갖추고 행진하였다. '신천 무용단'의 경우가 유일하게 설악산의 단풍을 상징하는 복색을 갖추고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하였다.

설악산을 상징하는 복색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동아리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 거리 퍼레이드의 성격인 것이다.

3. 거리 퍼레이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提言)

속초 축제의 거리 퍼레이드에 대한 향후 방향성의 설정은 의미가 크다. 참여하는 연인원의 수와 규모, 그리고 이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으며, 동시에 축제의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거리 퍼레이드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설악문화제 거리 퍼레이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안(代案) 및 보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본다.

현재의 거리 퍼레이드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설악문화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거리 퍼레이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속초 거리 축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거리 퍼레이드가 지닌 정체성이나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속초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속초 시민의 날 부활 및 제정' 안(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사 속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둘째, 거리 페레이드의 참여 성격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동별 참여에 있어 자발적 참여 보다는 주민 동원(動員)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행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퍼레이드의 성공적 개최와 진행은 성격상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변인(變人)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각 그룹별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등을 많은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볼거리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리 퍼레이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식상함을 더 한다는 의견이다.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그룹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의 성격상 '외부 단체'를 초청하여 거리 페레이드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볼거리나 국제

교류 차원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세워 ‘러시아 무용단, 세계민속무용단’을 거리 퍼레이드의 구성 요소로 참여시키는 것은 속초 축제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거리 퍼레이드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을뿐더러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고시 시기’의 적정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사업 고시 시기는 예산 책정 시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다. 시의회가 2019년 설악문화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을 두고 축제 관계자들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축제 개최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 올해 행사운영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사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해 본예산에 설악문화제와 관련한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어야 했다 ... 새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다...” 2018년 설악문화제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1회 추경에서 1,000만원, 행사를 한 달 여 앞둔 8월말이 되어서야 6억3천만 원이 확보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진행이 어려웠고, 거리 퍼레이드를 포함한 사업의 완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¹⁰

사업 관련 예산이 거리 퍼레이드의 준비는 기획 단계를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은 전년도에 세워져야한다.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매년 초 사업고시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준비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맞추어 행사를 위한 각 중 계획들이

세워지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III. 맺음말

현재 속초설악문화제에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거리 퍼레이드는 설악산을 상징하는 산악형 축제의 성격보다는 도심형 축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본다.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각 그룹은 설악산을 상징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표식 할 수 있는 의상이나 복식, 혹은 도구나 장비를 갖추고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상징(symbol)이기도 하다. 동시에 같은 집단의 유대감을 시민들에게 암묵적으로 전달하려는 의지 역시 퍼레이드에 담겨있다.

주민들이 만들고 즐기는 지역 축제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퍼레이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기획 단계에서 부터 거리 퍼레이드의 방향성, 이에 따른 체계적인 연습,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 행사에 이르기까지 참여자 모두가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선행되어야한다.

‘설악산’을 상징하는 ‘설악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거리 퍼레이드가 아닌, ‘속초 시민의 날’ 등과 같은 속초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에서 자신들이 지닌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더욱 완성도 높은 거리 퍼레이드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10. 설악신문, 설악문화제 예산 대폭 삭감... 개최 불투명, 2018.12.24.일자 기사 인용.

속초관광 활력사업 제언

속초경제의 싹틔줄 「속초갈래 길」 사업

이 수 영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길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작용해 땅에 새긴 발자국의 무늬들이다. 그리하여 길은 생활유산이다. 생활유산은 문화유산을 포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삶의 동적인 측면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지역공동체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길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의 가치가 있는 공공의 유산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다. 길의 개념은 이제 자동차길의 보조공간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공간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18년 2월, 「부산 보행길 종합계획구상」 본문 일부 발췌)

속초에서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한 시기는 지난 1974년 2월 23일부터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5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속초 세대는 초중고교 시절 대부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미시령과 척산에 나무하러 갈 땐 손수레를 끌며 다녔다고 하고 청대산 소나무3개 밑으로 칩을 캐러갈 때나 육모정(상도문) 솔밭에 소풍갈 때 도 싸리재를 걸어서 넘었다.

그동안 도시발전과 함께 번영로, 관광로, 수복로, 청대로 등 자동차길이 많이 생겼고 세월

이 더해가면서 좁은 면적에 교통 지·정체와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비싼 땅에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가. 이제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할 때가 왔다고 본다. 작지만 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찾아오는 손님도 즐거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필요하다. 설악산에 이르는 길을 제외한 속초의 길은 걸어서 2시간 이내면 대부분 도달할 거리이다.

차제에 속초의 모든 길을 걷기 중심으로 전환해보면 어떨까.

별도의 걷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들은 걷기 우선의 교통체계로 정비하고, 길 환경 정비와 제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걷기의 대중교통 연계시스템(Park & Ride System)을 도입해 외부지역에서 내부지역으로 진입할 때 자동차 통행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스나 택시,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걷는 길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 외부와 내부지역 경계부의 주요 버스와 택시 승강장 주변에 대형 지상·지하 주차

장을 조성해 도시 내부 자동차 통행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걷거나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통행 발생량을 대폭 늘려 설악산을 뺀 속초 전역은 걸어 다녀야 하는 「Only One 관광지」란 이미지 구축작업에 나설 때이다.

「속초갈래 길」 코스

걷기의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Park & Ride System)이 구축되면 (가칭)「속초갈래 길」 사업은 속초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속초수협 청년 물 예정지에 「속초갈래 길」 종합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속초의 골목길과 해안길, 호숫길, 산길, 논두렁길, 제방길 등 설악산을 뺀 속초 전역을 구석구석 느리게 걷는 것이다. 「속초갈래」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속초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에서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간 낱알의 가닥이나 부분 또는 계통이란 기본적인 의미로 속초를 잇는 촘촘한 길이란 뜻이다. 「속초갈래 길」은 총 8개 코스이다.

제1길인 영랑호길은 영랑교~보광사(충훈탑)~안축시비~범바위~습지공원(장천마을~국사봉)~화랑도체험장~카누경기장~영랑교이다.

제2길인 수복길은 장사항~영랑교~영랑해변~속초등대전망대~영금정~동명항~동명동 성당~수복탑~속초관광수산물시장~40계단 마을이다.

제3길인 속초해변길은 속초관광수산물시장~갯배 선착장(신포마을)~설악금강대교~아트플랫폼 갯배~유정충 선장 동상~아바이마을(청호해변)~속초해변~송림 산책로~새마을~외옹치(바다향기로)~대포항 방파제~대포 성황당~대



영랑해변 일대

포항~설악해맞이공원(설악항)이다.

제4길인 청대산길은 설악해맞이공원(설악항)~황토 제방길~하도문 싹채마을~충혼탑~떡밭재 입구~중도문(도천정)~청용암~청대산 정상이다.

제4길에서 나뉜 4-1길은 신라샘~싸리재~산림초소~상도문 한옥마을(학무정)이다.

4-2길은 삼림욕장길~싸리재~농로길~상도문 한옥마을(학무정)이다.

제5길인 청초호길은 옛 속초수협 일대~옛 HID~옛 칠성조선소~석봉도자기미술관(청초정)~엑스포상징탑~요트계류장~이기섭박사동상~유람선 선착장~마리나~속초수협이다.

제6길인 청초천 제방길은 청초교~청초천 제방길~소야별~돌탑카페~과수원길~산소숲길~응골 딸기마을~족욕공원~척산온천장 산책로~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발해역사관)이다.

제7길인 목우재길은 상도문 한옥마을(학무정)~설악동 야영장~설악동 민박마을~설악산 탐방안내소~설악동 소나무(천연기념물)~벚꽃터널길~목우재 옛 고갯길~척산온천 마을(족욕공원)~설악누리길~자생식물원~바람꽃 마을~학사평 순두부촌~속초시립박물관이다.

제8길인 배나무골길은 속초시립박물관~이목리 삼림욕장길~뒷버덩길~이목리 마을회관~배나무골 삼림욕장길~서울시연수원 산책로~속초시립박물관~숲 박물관~국립산악박물관(등산학교)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벤치마킹

제주올레길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비영리 순수 민간 사단법인이다.

지난 2007년 창립해 이사회, 자문단, 사무국, 자원봉사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사장1명에 이사 11명이며 손석희 JTBC사장과 의사, 교수, 기업인, 작가 등으로 구성되었고 자문단은 단장 1명에 자문위원 14명이다. 사무국은 대표에 사무국장, 기획운영실(행사기획팀, 코스유지 보수팀,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

실(홍보팀, 후원팀, 대외협력팀), 비주얼커뮤니케이션실로 포진되었고 자원봉사그룹은 아카데미 총동문회, 올레지기, 완주자클럽, 2030 청년자원봉사자 모임인 벨레기 간세가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운영방식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안은주 사무국장의 귀뜸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확약 받으면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안정된 인건비 등으로 현실에 안주하면 곤란하며 길 개척은 열정Pay(페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직장이 아니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고.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월 19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매월 정기적으로 1만원 이상 후원하는 개인회원이 1천400여명에다 후원 기업 및 단체는 44개, 특별 후원하는 개인이 45명, 기업 및 단체가 10개였다. 이사를 선임할 때 고려사항은 명망과 재정을 골고루 안배하는 것이며 특히 이사들은 꼭 이사회비를 받을 것을 안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이 주문했다. 또한 기념품과 가이드북 등 홍보물은 관내 업체에 위탁해 제작해 유료로 판매하고 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참고로 지난 2017년 말 기준 「제주올레」 운영 현황을 보면 수입이 5억6천여만원 (기념품 판매 9천여만원, 서비스 2억3천여만원, 식음료



제주올레 간세 인형

시장과 이중섭 거리를 연계해 젊은 방문객들의 투어코스로 구성했다. 특히 코스 중간지점인 「소라의 성」을 서귀포시 관광과에서 직영하면서 안내소 역할을 해 올레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코스 시작점과 중간점, 종점에 각각 스탬프 찍는 곳을 배치해 방문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속초갈래 길」 사업

판매 2억여만원, 영업외수익4천여만원)에 지출 5억5천만원(매출원가 2억3천여만원, 인건비 1억4천여만원 등 포함 판매 및 관리비 3억여만원, 영업외비용 2천여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천여만원이었다.

제주올레길은 총 26개 코스 425km에 이른다. 이중 제주올레 6코스(길이 11.6km, 3~4시간 소요)를 걸었다. 쇠소깍을 출발해 서귀포 시내를 통과, 이중섭 거리와 천지연폭포 위 산책로를 거쳐 제주올레 여행자센터까지 이어지는 해안 및 도심 올레다. 해안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금막과 삶과 문화가 숨 쉬는 서귀포 시내, 난대림과 천연기념물 5종이 서식하는 천지연폭포 위 산책로를 걸으며 서귀포의 문화와 생태를 접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서귀포 항구, 골목길을 따라 향토 작가의 길을 조성했고 이중섭 거리를 중심으로 상설 프리마켓 부스를 설치해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재래시장인 서귀포 올레

길도 관리 차원을 넘어 경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길은 공공의 영역이므로 공공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짜야한다. 속초의 고유한 공간성에 기초한 「속초갈래 길」의 보호, 유지, 강화,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속초갈래 길」을 경영하는 방법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주올레길과는 달리 「속초갈래 길」은 대부분 시내를 중심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골목길 상권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상권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구상돼야 할 것이다.

사업주체의 당기순이익에 함몰되지 않고 속초 경제의 실타래를 싱싱하게 해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다.

이 사업을 위해 먼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 가능한 「속초갈래 길」 스마트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속초사람들과 방문객들 누구나 도시 걷기 체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속초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체험단 앱을 운용한다.

「속초갈래 길」 표지와 상징물을 공모해 브랜드화 하는데 표지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가능한 최소화한다. 「속초갈래 길」의 풍광에 어울리는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정표와 먹거리, 볼거리 안내로 여행 편의를 높이고 각종 기념품을 개발할 때 「속초갈래 길」의 철학을 담은 저탄소 소재가 요구된다.

속초 대부분 지역은 경관 민감 지역이다. 경관 민감 지역이 많다는 것은 경관자원이 풍부하다는 말이다. 동일한 경관자원도 이용자의 체험 경로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인지된다. 「속초갈래 길」을 둘러싼 환경과 거주자와 방문자의 관계를 고려한 경관 민감 지역 특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속초갈래 길」 안내소와 화장실은 코스마다 기존 상권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외곽코스의 안내소와 화장실은 기존 산불초소에 친환경 자연발효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속초갈래 길 아카데미」를 기수별로 모집해 속초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강의하고 숨겨진 스토리도 발굴한다. 3일에 걸쳐 총 18시간 교육을 받고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 한해 길동무 활동을 부여한다. 길동무 지원조례를 만들어 한 달에 10회 근무에 8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각 코스별로 「1사 1속초갈래 길마을」 자매결연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

특히 「속초갈래 길」 브랜드 레버리징(해당 브랜드 관련 유·무형의 자산들 중에서 지렛대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그 힘으로 잠재력을 극대

화하는 것)으로 설악문화제, 영랑호 벚꽃놀이, 전국 실향민제전, 속초해변제 등을 「속초갈래 길」에 연결해 이용자 반응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치밀한 전략도 필요하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셀럽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유명인사와 언론매체를 초청해 「전국 속초갈래 길 걷기 축제」를 열어 걷기와 길 위의 문화공연을 통해 「속초갈래 길」이 자연스럽게 국내외에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다.

「속초갈래 길」 기대효과

「속초갈래 길」이 활성화하면 단기관광이 체류 여행으로, 단체관광이 개별여행으로, 자가용 관광이 택시와 버스, 고속화철도 등 이용여행으로, 수수료 관광이 자유공정 여행으로, 관광지 관광이 마을과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일회성 관광이 계절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시 찾는 여행으로, 신혼부부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기업인 등이 다시 찾는 속초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이 길을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게스트하우스 문화 확산은 물론 민박과 펜션, 모텔 등이 활성화하고 특급호텔과 리조트들도 각각 「속초갈래 길」을 활용한 상품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속초갈래 길」로 인해 인근 상권이 살아나고 특히 아침 영업식당들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식 메뉴를 개발하는 등 숙박과 식당 등이 활성화해 고용 창출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속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

김인섭 (속초문화원 문화마을사업 매니저)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관광객 유치수와 관광지 조성의 양적성장 추구에서 지역특색, 사람중심의 질적 관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일변도의 관광한계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관광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 관광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 제주도의 ‘질적관광 전환을 위한 관광분야 5대 역점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이다. 물론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사정은 다르지만 속초도 이제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관광발전을 고민할 때가 왔다.

속초관광, 양적성장에서 질적관광으로

‘우리 동네 소소하고 풍성한 장미꽃길 이야기’(이하 꽃길), ‘칠성조선소 뮤직페스티벌’(이하 칠성조선소), ‘강원도 전통문화관광상품 상설공연, 갯마당’(이하 갯마당), ‘대포야(夜) 사랑해(海)’. 지난 5월 1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속초에서 펼쳐진 행사이다. ‘꽃길’은 교동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이 주민사업으로 조성한 장미꽃길을 매력적인 장소만들기의 관점에서 주최했다. 올해 처음인데다 사업비도 적었지만 주민의 삶터를 문화이벤트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100% 달성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중랑구 장미축제도

그 시작은 소소했지만 지금은 중랑구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외부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영입하면서 여성 대상의 트렌디한 기획으로 바꾸면서 가능했다.

‘칠성조선소’는 폐산업시설을 창조공간으로 만들면서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이벤트였다. 얼리버드 티켓은 오픈 30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도시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칠성조선소’는 속초형 사례이다. ‘갯마당’은 속초 유일의 공연분야 사회적기업이다. 아직 자생의 풍토는 조성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에 이바지하고 있다. 19일 행사도 관광상품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공모사업이다. ‘대포야 사랑해’는 속초시의 직접 사업비로 진행된다. 속초시의 주말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꽃길’을 제외한 3곳의 행사는 관광객 대상이다. 공연이나 행사의 완성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관광유발 효과와 관리체계이다.

속초 관광객 1천5백만시대라고 한다. 지난해 7월 한국관광공사가 SKT와 함께 여행 관련 검색어를 분석했는데 상위 20위 중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속초 명소가 7곳을 차지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여름 휴가철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어에서도 1위였고, 국내 여행객 대상으로 한국여행업협회가 선호 지역을 조사했을 때도 속

초는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였다. 미시령터널이 뚫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수도권과 한시간대 거리로 좁혀지면서 새로운 관광도약의 전기를 맞는 것이다. 여기에 11만톤급 코스타세레나호 입항 등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의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목표도 갖고 있다.

관광이 지역발전의 중심축인 속초에서는 관광객의 양적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의 투입도 많았다. 속초관광수산시장과 로데오거리, 대포항이 대표적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이제 시장의 역할보다 관광지의 역할이 더 강한 공간이 되었다. 주말만 되면 속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가 된다.

되었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그 많은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는 것일까? 오히려 주말 교통난과 쓰레기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악화로 주민 삶의 질

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속초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하나로 ‘양적목표’에서 ‘질적목표’로 전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치 위주의 계량적인 관광관리에 더하여, 외래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 관광경쟁력 순위 등 7대 질적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숙박, 교통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기업 체질 개선 등 관광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관광정책을 수정한다. 제주도는 ‘제주관광 질적성장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적성장에 맞는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 관광객 체류일수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1인당 평균지출비용, 여행행태, 마케팅 변화지수라는 5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 관광도 양적성장에서 질적관광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양적성장 지향은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믿음만 있었다. 하지만 연간 1천5백만이라는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관광효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정책의 마련이 미래 관광의 양적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양적성장에서 질적관광으로의 전환은 관광을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시 발전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과 같다고 보면 된다. 도시재생은 그 공간의 장소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하며 주민참여를 우선시한다. 관광도 마찬가지로. ‘관광객’과 ‘관광산업’ 중심의 관광

정책에서 ‘지역민’과 ‘지역다움’을 관광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트렌디한 콘텐츠의 개발, 도시재생의 결과물로써 도시관광을 고려하는 전략적 목표의 수립, 사회적 경제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의 모색, 실향민이나 지역서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축제와 마이스(MICE)를 통한 관광산업의 재편, 4차혁명에 대비하는 관광속초 구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5월 19일로 돌아가 본다. ‘꽃길’의 주민 참여와 아이디어, ‘칠성조선소’가 들려주는 재생의 가치와 트렌디한 콘텐츠에 대한 외지인의 반응, 사회적 기업 ‘런갯마당’, ‘대포야 사랑해’의 장소성을 위한 문화이벤트. 속초는 양적성장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외부 전문가의 시선과 내부의 역량강화,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에서 찾는 도시관광의 가능성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터미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더니 서점과 술집 등 매력적인 공간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서점 겸 게스트하우스 ‘완벽한 나날’이다. 시간의 내력이 차곡차곡 쌓인듯한 터미널 뒤편에 불현듯 나타난 복합문화공간이다. 운영자의 애정이 묻어나는 서적 큐레이션, 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리는 북콘서트, 드문드문 반가운 소식 들려주는 전시회로 속초문화에 풍성함을 더했다.



버려진 양곡창고에서 예술창고로 변한 담양의 '담빛예술창고'. 330㎡ 규모로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선 담빛예술창고는 본래 1960년대 지어진 붉은색 양곡창고였다. 버려진 창고가 정부의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담양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최근에는 그 골목에 '동명동 별장'과 '백수씨 심야식당'이 들어섰다. '동명동 별장'은 상업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별장'이다. 가족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뿐이다. 오래된 주택의 골조와 느낌은 그대로 두고, 주인공의 취향이 곳곳에 묻어나도록 꾸미고 있다. 혼자서 느릿느릿 조성하는 개인공간이지만 만듦새가 심상치 않다. 손 때 묻은 낡은 공간에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지면서 고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옆으로 50미터 정도 걸어가면 '백수씨 심야식당'의 간판을 만날 수 있다. 나무간판에 희미하게 적혀있는 가게 이름이 무심하게 느껴진다. 6월에 문을 열었다는데 흔한 현수막 하나 붙이지 않았다. 이웃집과 함

께 오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전의 매력이 있다. 목욕탕 타일이라고 부르는 촌스러운 색감의 타일과 고급스러운 키엔호 타일의 조화, 불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오픈 주방, 빈티지한 소품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온다. 오래된 주택을 최소한으로 개조하면서 고유의 인테리어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버려진 골목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반전 매력의 공간은 젊은층의 사랑을 받으며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홍대에서 시작하여 연남동, 문래동을 거쳐 최근에는 익선동과 을지로가 그렇다. 저렴한 임차료와

편리한 교통을 찾는 젊은 예술가들이 쇠락한 상업공간을 재발견하면서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넛지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사전적 의미의 넛지 효과는 강제적 규제나 감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행정이 주도하는 전면 재개발 형식의 구도심 변화보다 주민 중심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공동체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주민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자연스럽게 공간이 살아나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문화적 재생으로 도시관광의 활력을

지난 2017년 한국관광공사의 봄 여행주간은 도시재생의 현장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제안했다. 대상 지역은 모두 문화적 도시재생을 한 곳이다.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담양 담빛예술창고, 삼례 문화예술촌, 청주 동부창고, 부산 또따또가, 대구 북성로, 광주 양림동, 대전 원도심, 인천 배다리, 제주 원도심, 충남 부여, 경북 안동, 경남 통영, 강원 묵호, 서울 필동 등 대표적인 문화재생 시설과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연구자, 전문가, 예술가 등과 함께 해설을 듣고 도시 재발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부산의 ‘작가와 함께 하는 또각또각 예술투어’는 중앙동 유희건물을 예술가 입주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에 성공한 사례를 체험했다. 대구의 ‘북성로의 시간여행’은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한 리노베이션과 기술장인들과의 콜라보를 통한 기술생태계 재생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

시연구자가 함께 했다. 인천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배다리마을의 도시재생 사례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 사례도 있다.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집과 골목에 역사와 추억이 벽화로 그려진 묵호항 논골마을이 관광 콘텐츠로 재발견된 것이다.

부여군은 1500년 동안 쌓여온 부여의 역사를 시인의 시와 함께 읽어가며 시인의 시세계를 통해 부여를 재발견하게 되는 여행코스를 만들었다. 전북 완주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역사가 담긴 양곡창고를 예술공간으로 바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삼례의 미학을 만들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은 폐산업시설을 ‘담빛예술창고’로 만들어 문화가 살아있는 휴식공간이자 예술 전시공간으로 만들었다.

문화적 재생의 역효과도 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 벽화로 유명한 이화마을, 새로운 도시재생의 결과로 주목받는 낙원상가 등이 그렇다.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의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이화마을의 일부 주민은 벽화를 지웠다. 맥락이 없는 스토리텔링을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없이 ‘벽화’로 보여주는 재생, 가난마저 상품화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인천의 ‘옛 생활체험관’ 설치시도도 역효과의 하나이다. 관광효과 사례만 보면서 재생의 탈을 쓴 신개발주의 욕망이 도시재생의 이름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쇠락하게 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 방식에서 ‘유지, 관리 위주’로의 전환,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특

히, 구도심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여 생활사적 가치와 아날로그 정서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효과가 도시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앞서 관광공사의 프로그램이 그런 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 활성화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도시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발간된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관광 정책 방안연구>(김향자/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대표적이다. 도시재생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만들다보니 관광관련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과제와 부처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속초도 올해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 몇 년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구 속초수협'도 해당된다. 이곳은 도시재생과 도시관광이 중첩되는 곳이며 수산업도시 속초의 역사문화 장소이기도 하다. 시 행정조직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과, 건축디자인과, 관광과가 협력하여 정책의 성과와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각의 변화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을 개발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주민과 장소성의 발견이라는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적 관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장소의 자본가치 상승이나 자본만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만들어야 할 가치와 버려야 할 산물을 분별하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통합적 관리능력, 주민의 주도적 참여방안 마련, 장소적 가치의 발견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력을 일으키고 도시관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실향민 문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속초 관광은 실향민문화가 먹여 살린다. 주말이면 갯배를 타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관광객의 모습이 진풍경이다. 갯배 건너 청호동에는 오징어순대와 냉면, 순대국 가게가 즐비하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T map 빅데이터 분석결과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은 시장현대화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청의 시장활성화사업을 하면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그때 주요콘텐츠가 '실향민문화'였다. 주차장 입구에 시장과 실향민의 옛모습을 담은 전시관, 시장 안의 명태 박물관, 속초사자놀이와 돈돌날이 공연이 바탕이 되었다. 갯배와 청호동으로 이어지는 연계관광도 시장의 관광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다.

실향민문화는 지역민의 생활공동체에서 나왔다. 먹거리 중 가장 인기 있는 물회도 따지고 보면 어부들의 일상에서 나왔고, 어업문화가 이북 실향민의 대거유입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속초의 가장 뜨거운 관광아이템은 실향민 생활문화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향민문화의 원형을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실향민문화축제'나 '갯배예술제'도 개최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아트플랫폼 갯배'를 건립하는 등 실향민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향민문화가 속초의 대표브랜드로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족하다. 미래관광콘텐츠의 확산도 약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장소성의 약화를 말한다. 장소성이란 주민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



구 속초수협 내외부(전태극 작). 실향민과 수산업 등 속초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 개발하여 위성박물관 3~4개를 에코뮤지엄의 방식으로 조성한다면 속초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시작은 문화와 관광, 도시재생의 협업에 있다.

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매력적인 장소성을 개발하기 위해 잠재자원을 개발하거나 축제같은 가시적 이벤트로 인위적 조성을 한다. 하지만, 속초는 실향민문화촌이 청호동과 동떨어진 장소에 건립되어 무형의 가치에 대한 보존과 지속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게 되었다. 최근의 청호동 개발붐은 그 결과이다.

청호동의 공동체 기반이 위협받게 되자 아바이마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도 활동이 늘었다. 아사모(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는 마을미술프로젝트로 탄생한 ‘아트플랫폼 갯배’를 거점으로 지역성을 간직한

문화활동을 기획한다. 최근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는 유정충 선장의 동상을 청호동 신수로 공원조성 부지로 옮겨와 새로운 가치 조명에 앞장선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은 의미 있다. 실향민문화촌 건립과 실향민 축제 등 관 주도 실향민문화콘텐츠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호동, 실향민문화 장소성 회복 중요

아사모 정성수 회장은 “실향민 1세대가 일군 삶의 터전이 점점 제 모습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향민문화축

제 등 실향민 콘텐츠가 청호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 활동은 청호동을 실향민 문화의 의미가 발현된 상징적 ‘장소’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쟁과 분단을 맨몸으로 겪으면서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청호동이라는 지역이 ‘장소’와 ‘기억’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실향민 문화의 장소성이 약해지자 축제를 통한 인위적 장소성 부여도 시도되었다. 2016년 청호동에서 개최한 ‘실향민문화축제’는 실향민 문화를 집대성하여 다른 향토문화축제와 차별화되는 축제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청호동이라는 장소, 이북5도민이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축제의 지향이나 프로그램, 대중성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음식과 공연을 나열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실향민 문화의 보존과 활용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축제발전용역을 맡은 문화컨설팅 바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언을 통해 실향민 문화의 미래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향민이라는 주제는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있어 명확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이벤트성 축제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 콘텐츠가 쌓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실향의 주제를 실질적 문화소비자인 20~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문학적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미래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제평화마을 선포식’, ‘평화시계 제작’, 실향민 기록 프로젝트 ‘피스 마스크’, ‘삶의 기술, 생존기술 체험’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청호동의 장소적 가치를 높이면서 실향민문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

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황폐한 청호동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실향민 정착기는 생존기술이나 공유문화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지난해 지역문인의 청호동 소재 문학작품을 집대성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의 원고를 쓴 김종현 시인은 청호동의 어르신들 한분 한분의 구술을 통해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속초 실향민의 집단 기억 속에 상징화 되어 있는 ‘기억의 장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코뮤지엄 방식, 주민참여 중요

실향민 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성공적인 방식은 축제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앞서 문화컨설팅 바라는 제안했듯이 지역 내에 콘텐츠가 쌓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 방식도 필요하다. 에코뮤지엄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 계승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독특한 형태의 박물관이다. 오히려 가르키는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지역의 유산, 지역주민의 참여, 박물관 활동”으로 제시한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유물의 보존과 전시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공간에 조성하여 쉽게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청호동의 경우 오징어할복장이나 덕장, 옛골목이 그렇다.

에코뮤지엄이 각광받는 이유는 콘텐츠의 보존과 개발이 주민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관광을 위한 재개발이나 랜드마크 만들기가 아니라 원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자산

을 가꾸는 방식은 문화재생, 관광자치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진해 원도심 에코뮤지엄과 임실군 섬진강 에코뮤지엄이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경기만 일대의 문화자원을 엮어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펼친다. 최근에는 인천의 시민들이 모여 인천의 중요 공간 5곳을 거점으로 ‘인천 에코뮤지엄 플랜’사업을 펼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청호동을 비롯한 속초 곳곳의 실향민 문화도 에코뮤지엄의 방식으로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복탑과 갯배, 음식문화와 사자놀음이 지역민 삶의 방식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임을 주목해야 한다. 속초시립박물관이 중핵박물관이 되고, 수산업 중심의 구 속초수협, 오징어 할복장 등 자연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을 발굴 및 현지 보존하고 재생을 통한 콜렉션 자원을 개발하여 위성박물관으로 구성한다. 이들 박물관의 주요 전시주제와 내용은 주민참여 기반의 관리로 운영되고 체험교육과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한 속초에코뮤지엄 포럼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향민 문화는 과거의 향수나 오늘의 현실반영을 넘어 미래의 가치를 구현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

축제와 마이스(MICE)를 통한 관광산업의 재편

화천 산천어, 스페인 토마토, 영국 에딘버러, 일본 삿포로 축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이다. 이들 축제의 특징은 지역민이 축제를 준비하고 관광객은 축제에 맞춰 여행일정을 계획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지역의 경제가 축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재원도 넉넉하다. 축제 파생상품도

개발되어 지역경제의 든든한 축이 되었다.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축제를 돋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축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도 했다는 점이다. 관광은 결과이고 경제활성화는 부가수익이다.

영국 에딘버러 축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침울했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했다. 유명한 극단을 초청해, 잘 갖춰진 극장의 공연보다 거리나 교회에서 가능성 있는 작품들의 경연장이 되도록 만들었다.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결방식 과정 그 자체가 축제가 된 것이다. 50여개 국가에서 1500여편의 작품, 소도시 내 170여 곳이 공연장으로 탈바꿈된다. 토마토는 지역의 과일 특산품을 활용했고, 삿포로는 추위와 눈이라는 자연환경을 역발상으로 활용했다. 축제 성공의 결과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축제와 문화예술 함께 성장해야

축제는 지역문화의 전승과 공동체성 복원이라는 전통의 의미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수단이자 목적이 된다. 차별화된 축제를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 장소성 마케팅이나 스토리를 만든다. 몇몇 축제의 성공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돈으로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메가 이벤트이다. 한국 대표 축제로 꼽히는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금산인삼축제는 축제 투자대비 20배가 넘는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화천군은 축제산업이 지역내총생산액의 10%를 차지한다. 축제가 지역 대표산업이 되는 것이다.

올해 속초시의 ‘청초호와 빛을 활용한 축제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맡은 문화컨설팅 바라의 속초시 축제 현황에 의하면 속초시의 축제는 경관형이 5개, 특산품이 6개, 문화예술, 체험, 전통역사가 각 1개씩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들여다보면 속초 축제는 빈약하다. 가장 큰 설악문화제가 6억5천만원 정도이고 1억원 이상 축제는 붉은대계 속초, 실향민문화축제 정도이다.

최택수 속초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은 ‘붉은대계 속초’를 성장가능성이 높은 축제라고 말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철 먹거리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고, 실제 관광객 관심도 높다. 하지만, 먹거리 외의 매력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다. 업체 참가 방식의 개선이나 파생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 국장은 기존의 축제 외에 매력있는 상품은 청초호나 영랑호 같은 호수를 이용한 축제지만 수상레저 등 호수 활용 이벤트와 환경적 가치가 부딪히면서 기본적인 한계를 보인다고 했다.

속초시의 고민도 비슷하다. 기존의 축제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향민문화축제, 설악문화제, 청초호와 빛을 활용한 축제의 용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이들 용역 결과, 공통점이 있다. 속초의 관광매력도가 가장 높은 ‘음식’ 관련 축제를 제안한 것이다. 실향민음식부터 동해안 수산물 대표음식 축제, 음식영화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차별화된 축제는 아니지만 관광지속초의 매력도와 파생상품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히 차별화된 소재에서 찾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속초민예총 정은희 국장은 “축제의 산업화를 기본적으로 빛내주는 것은 문화예술인데, 축제가 문화예술진흥을 단순한 수혜적 차원 정도로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지역 예술의 수준과 역량이 축제 발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이든 미술이든 순수 예술축제가 존재해야 예술생태계가 조성되고 그러한 기



반 위에 다른 문화관광형 축제를 빛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의 외부전문가 참여 플랫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의 한강몽땅 축제는 포럼에 런던템즈강 축제 총감독과 호주 브리즈번 축제 예술감독을 초청하여 관련 사례를 집중 소개하였다. 속초 축제도 소재나 규모 등 공통점이 있는 성공한 축제의 감독을 초청하여 노하우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

지역문화예술, 마이스산업과 연계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속초시는 지난 2017년 강원연구원에 ‘속초시 MICE 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수행과제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속초시는 도로 교통망 확충, 풍부한 관광자원, 다양한 리조트와 관광시설 등 글로벌 비즈니스 목적지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속초시 MICE 산업은 비즈니스와 도시여행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5S라는 수단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5S는 Stay(숙박), Sunny Beach(해변), Seorak Mountain(설악산), Summer Night(야간관광), Story Abai(함남문화)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속초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이다. 하지만 아직 그 매력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설악산 숙박단지의 문화적 재생, 속초 지역 해변의 관광목적지로서의 정비, 야간관광 상품의 개발, 아바이문화의 매력도 상승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융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이스 참가자들의 대상적 특성과 욕구수준을 파악하여 도심투어상품(로데오거리 투어, 수산시장 투어, 영랑호 힐링트레킹), 나이트투어(야간 맛집, 야외 공연), 팀빌딩 프로그램(설악산 트레킹, 영랑호 카누체험) 등을 제시했다. 속초만의 함남스타일로 특화서비스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실향민 이야기나 사자놀이, 음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비스 등을 특화시켜 상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속초 방문 마이스 참가자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취약한 분야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장 수준높은 공연이나 체험을 보여줄 수 없는 만큼 기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전시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이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이정무 속초예총 사무국장은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이스 참가자들과 만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진흥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마이스와 지역을 연결시킬 정보안내체계의 구축, 워크데이 운영, 전담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축제와 마이스 산업은 자연관광 위주의 속초 관광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거나 체계성이 약하지만 속초 관광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획 2 ”

장재환

- 창간 30돌 앞둔 향토지 '설악신문'의 지나온 길

정종천

- 지역성을 살린 전시와 문화체험 공간 속초시립박물관



설악신문

창간 30돌 앞둔 향토지

‘설악신문’의 지나온 길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설악신문〉이 내년이면 창간 30돌을 맞는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강원도내 ‘지역주간신문’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전국적으로도 창간 연도가 상위에 속한다.

이른바 풀뿌리언론이라고 부르는 지역주간신문은 소규모 지역의 문제와 정보를 다루고 여론을 결집하며 시민들을 소통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기록하는 기능도 한다.

전국 단위의 ‘종합일간지’와 대별되는 ‘지역신문’은 광역단위로 발행되는 ‘지역일간신문’과 시·군·구를 주 취재·발행지역으로 하는 ‘지역주간신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을 ‘일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 기준 한국ABC 부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주간신문은 모두 541개사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 지역주간신문은 25개사가 등록돼 있다. 지역일간신문사는 전국 121개사, 도내는 〈강원일보〉와 〈강원도

민일보〉 2개사가 발행되고 있다. 한 시·군에 여러 개의 지역주간신문이 경쟁적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부천시의 경우 13개사나 된다.

우리 설악권에서도 1990년대 중반 〈설악신문〉을 비롯해 〈영북신문〉, 〈설악문화신문〉, 〈설해신문〉 등 4개 지역주간신문이 발행된 적이 있었다. 지역주간신문 간 경쟁이 치열할 때였다. 현재는 〈설악신문〉만 남아 있고, 나머지 신문들은 안타깝게도 경영난을 어찌지 못하고 문을 닫아 과거의 신문이 되고 말았다.

이 보다 훨씬 앞서 설악권 최초의 지역신문으로 알려진 〈동해일보〉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 17일 창간호를 내고 1955년 3월까지 3년 가까이 속초에서 발행됐었다. 〈동해일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경선 설악닷컴 대표가 〈동해일보〉의 실제 지면을 찾아 〈설악신문〉에 2016년말 ‘설악권 최초의 지역신문 ‘동해일보’를 찾아서’란 타이틀로 소개한 바 있다.

■ 지역주간신문 창간 배경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확대돼 왔다. 지역신문 잇단 창간의 물꼬를

튼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 6월 항쟁은 군사정권으로부터 직선제 개헌과 지방자치 실시, 언론자유 보장 등이 담긴 6. 29선언을 이끌어 냈고, 지역언론 활성화의 발판이 됐다. 그전까지는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지방지는 1도 1사제가 실시되어 지방에 10개의 신문만을 허용했고, 그해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사실상 허가제로 규제해 언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다.

지방자치제 도입도 지역주간신문 창간을 가속화시켰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선거, 같은 해 6월 20일 광역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 선거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제의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오랜 기간 지역주간신문에 대해 연구해온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언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지역언론 없는 지방자치란 있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의 제대로 되려면 건강한 지역언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90년 ‘설악신문’ 창간

현존하는 지역주간신문 중 충청남도 <홍성신문>이 가장 이른 1988년 창간했다. <설악신문>은 그로부터 두 해 지난 1990년 5월 28일 세상에 나왔다. 당시 전교조 해직교사였던 박종현 <설악신문> 이사가 발행·편집인을, 이상국 시인이 창간준비위원장을 맡아 1년여의 준비 끝에 창간했다.

박종현 초대 발행인은 지난 2010년 ‘설악신문 창간 20돌 기념 전·현직 발행인 대담’에서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민중의 승리가 지역신문 창간의 불을 일으켰다”며 “한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언론매체 없이도 민주화를 말하고 꿈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악신문> 창간 배경을 회고했다. <설악신문>은 창간등록이 한차례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등록증을 받았다.

신문제작비용은 박종현 초대 발행인이 교직에서 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13평 주공아파트를 저당 잡혀 은행에서 빌린 돈과 뒤에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모은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주민이 주축이 되는 민주적 신문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문사를 운영했다. 초대 운영위원장을 이상국 시인이 맡았고, 운영위원으로 김명동, 탁명원, 배덕찬, 최관식, 이민호, 박명종, 주영래, 백미주, 김미숙, 성봉경, 김효덕, 김충길, 윤관혁, 정광남, 김주옥, 김경식, 최영신, 엄길순씨 등이 참여했다. 기사는 조기식 취재부장을 비롯해 김송희, 이창순, 민영숙, 김종민씨가 초창기 멤버로 함께 했다.

창간 당시 사무실 주소는 속초시 교동 829-1로, 만천동 지역 한 건물의 2층에 있었다(그 후 속초신협 3층, 영랑동 문화회관 인근, 동진리호텔, 금호동 광명주유소 아래, 교동성당 뒤를 거쳐 2004년 중앙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창간 예비호(1990년 5월 12일자)를 거쳐 그해 5월 28일 발행한 창간호의 제호는 <속초신문>이었다.

■ 지면으로 보는 ‘설악신문’ 연혁

‘속초신문’ 창간 예비호 발행

1990년 5월 12일(토)자로 <속초신문> 창간



속초신문 창간 예비호(설악신문사 제공)

예비호(4면)가 나왔다. ‘주민의 신문, 지역사회의 밑돌, 지역문화 창달’을 사시로 내걸었다. 창간 알림 기사에서 ‘속초신문은 지방행정의 홍보와 함께 그 감시의 역할을 통한 조화로운 신문이 되고자 한다’며 ‘지난 3월 16일자로 공보처의 등록(등록번호 : 다-1201)을 마치고, 창간 준비작업을 서둘러 그동안 창간위원회, 편집위원회 구성 등 민주합의체 형식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창간 준비를 마쳤다고 썼다. 조기식 기사가 촬영한 갯배 사진이 1면에 실렸다. 1면 제호 옆에 ‘영창피아노 속초대리점’ 광고가, 제일 뒷면에 ‘(주)한진상사’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속초신문’ 창간호 발행

창간 예비호에서 ‘속초신문 5월 26일 창간’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창간호는 휴일이 끼여 1990년 5월 26일자가 아닌 5월 28일(월)자로 발행됐다. 1면에 실항민의 아픔을 담은 수복탑 사진을 실었다. 제호는 초대 박중현 발행인의 형인 서예가 박중화씨가 썼다. 타블로이드판형



속초신문 창간호(설악신문사 제공)

16면으로 초기에는 격주간으로 발행했다. 구독료는 1부 500원, 1개월 1,000원이었다.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

1990년 10월 29일자(지령 11호)부터 제호가 <속초신문>에서 <설악신문>으로 변경됐다.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설악신문사 제공)

이때부터 격주간에서 주간으로 발행주기가 짧아졌고, 대신 면수를 8면으로 줄였다. 제호는 서예가 김광희씨의 글씨다. 박종현 초대 발행인에 따르면 창간 당시부터 속초를 기반으로 시작해 점차 고성, 양양지역까지 취재 및 발행지역을 확대하고 제호도 <설악신문>으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지령 18호를 끝으로 1차 휴간



1차 휴간(설악신문사 제공)

<설악신문>은 재정적 문제로 1990년 12월 24일자(지령 18호)를 끝으로 휴간하게 된다. 1면 기사에서 '이번에 <설악신문>이 휴간하게 된 것은 박명종씨(현 발행인) 등 차기 인수자의 재창간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인 휴간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초 <속초신문>이란 제호로 환원시켜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속초신문' 재창간 예비호 발행

1991년 2월 11일자로 <속초신문> 재창간 예



재창간 예비호(설악신문사 제공)

비호가 발행됐다. 재창간 예비호에서 사고를 통해 '창간 당시 발행인 박종현씨가 주식회사 설립 후 주민합의체에 신문사를 인계한다는 약속대로 지난 90년 12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차기 인수자에게 운영권과 판권을 양도했다. 차기인수자는 속초출신의 박명종·최동훈·고영진씨 등으로, 오는 3월 4일에 <속초신문>이란 제호로 환원시켜 '속초인이 만드는 속초인의 신문'이란 기치 아래 타블로이드 배판(기존 일간지 크기) 8면으로 발행한다'고 알려졌다. 또 1월 12~20일 실시한 '속초인의 뜻모임' 설문조사 결과, 유효응답자 중 90.6%가 지역신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발행인은 치과의사로 <설악신문>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했던 박명종 현 발행인이, 편집인은 최동훈씨가 맡았다. 박종현 초대 발행인이 <설악신문>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박명종 발행인은 오랜 기간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의 형태를 갖추게 했다.

1991년 3월 4일자 '속초신문' 재창간



속초신문 재창간(설악신문사 제공)



속초신문 휴간 후 속간(설악신문사 제공)

〈속초신문〉 재창간호가 1991년 3월 4일자로 발행됐다. 판형이 타블로이드판에서 신문 대판(8면)으로 커졌다. 재창간 알림 기사 첫 단락을 ‘속초·고성·양양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의를 대변하고 이 지역의 소식과 생활정보를 담당해 나갈 속초신문이 3월 4일, 오늘 날짜로 재창간호를 발행했다’고 썼다. 기사에서 제호 변경 사유로 ‘고성과 양양에도 새로운 신문이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는 뜻에서이다’고 밝혔다.

1991년 ‘주식회사 속초신문’ 법인 설립

〈설악신문〉은 〈속초신문〉으로 재창간한 후 1991년 6월 13일 법인(주식회사 속초신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 제1333호)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92년 2월 7일 제2차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박명중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1991년 서울지사(초대 지사장 김영철)를 시작으로 고성과 양양에도 지사를 운영했다.

‘속초신문’ 또 휴간 후 속간

지역신문의 길은 너무나 험겨웠다. 1991년 3월 4일자로 재창간했던 〈속초신문〉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10월 14일자(지령 49호)를 끝으로 휴간했다가, 이듬해인 1992년 3월 23일자(50호)로 속간했다. 임직원들은 1면 사고를 통해 ‘앞으로는 결코 휴간하는 일 없이 올곧게 나아가는 〈속초신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면에 매킨토시 컴퓨터 신문 편집기를 도입해 자체 편집·제작이 가능하게 됐다는 광고를 실었다. 이전에는 매주 기자들이 직접 기사 원고를 싸들고 서울 편집대행사에 가서 편집, 교정 일을 해야 했다.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

〈속초신문〉에서 〈설악신문〉으로 또 한 차례 제호를 변경했다. 1992년 10월 12일자(지령 79호) 1면에 〈속초신문〉이 11월 2일자(지령 80호)부터 〈설악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한다는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설악신문사 제공)



100호 발행(설악신문사 제공)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 ‘명실공히 영북지역 최대의 주간신문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제호의 지역적 폐쇄성을 딛고 속초와 고성, 양양을 총망라하며 영북지역 전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제호 공모를 거쳐 선정된 10여개의 제호 중 이사회회의 심의 끝에 <주간 설악신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간 3년만에 지령 100호 발행

<설악신문>은 1993년 4월 12일자로 지령 100호를 냈다. 알림 기사에서 ‘18호에서 19호를 펴내기까지 3개월, 49호에서 50호를 다시 내기까지 5개월이 걸려야 했다’며 ‘한 호 한 호가 지날 때마다 노심초사 애태웠다’고 털어냈다. 98명의 주주와 지역주민, 광고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설악신문’ 별지 발행

<설악신문>은 본지 외에도 1993년 10월 4일 별지인 ‘생활과 경제지’(이후 ‘장터’로 변경)를 신

설해 98년 6월 29일까지 발행했다. 또 특별판 ‘피플 앤 스토리’(2011년 9월 12일~2014년 3월 31일)도 냈다.

문화공연 기획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1993년 속초연극사상 최초 연장공연을 한 ‘위기의 여자’ 기획공연을 비롯해 ‘노래를 찾는 사람들’(94년), 창간 7주년 기념 북한동포돕기 ‘하덕규 콘서트’(97년), 연극 ‘아, 제암리여’ 공연(2001년)과 제1회 사장기 족구대회(2001년)를 개최했다. 기획사업부를 두고 1996년 1월에는 제1회 설악눈꽃제를 기획, 개최했다.

신문 판형 타블로이드로 변경

<설악신문> 판형이 1998년 3월 30일자(지령 354호)부터 신문 대판(12면)에서 현재의 타블로이드(24면)으로 바뀌었다. 제호도 새롭게 디자인됐다. 알림 기사에서 판형 변경의 이유로 ‘정겨운 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은 기



100호 발행(설악신문사 제공)



새 디자인(설악신문사 제공)

존 일간지 형태의 권위적인 대판판형보다는 아담한 크기의 타블로이드판이 잘 맞습니다. 지역신문의 차별성과 친근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편집방향 또한 단편적 기사에서 벗어나 흥미있고 유익한 심층기획 기사를 중심으로 탈바꿈합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1면과 24면을 컬러로 발행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설악신문’ 제호 새 디자인

〈설악신문〉은 새롭게 디자인된 제호를 2007년 11월 26일자(지령 833호)로 선보였다. 글자 색깔은 동해를 연상케 푸른색으로, 제호 아래 띠는 설악산의 이미지를 담아 녹색으로 표현했다. 이후 2010년 9월 20일자(975호)부터 제호의 크기가 약간 작아졌고, 주변이 간명하게 정비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설악권 향토신문 역할 지속하길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펼쳐지면서 〈설악신문〉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법 제정 후 〈설악신문〉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에 선정되면서 기획취재, 시민기자 운영,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다.

〈설악신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박종헌 초대 발행인과 박명중 현 발행인을 비롯한 수많은 임직원들의 열정과 헌신, 지역주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뜻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설악신문〉이 창간 30돌을 지나 설악권의 대표적인 향토신문으로서 멈추지 말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역성을 살린 전시와

문화체험 공간 속초시립박물관

정 종 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담당)

1. 들어가는 말

속초시립박물관은 2005년 11월 4일 개관 이래 현재까지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속초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체험하는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 시설규모, 운영인력, 연간 개최되는 기획전시회·문화체험행사·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인구 10만도 되지 않는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인 속초시립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보고, 타 시·군 공립박물관 관계자들은 적잖이 놀란다. 실례로 2017년 문화관광부에서 처음으로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속초시립박물관은 강원도 내 공립박물관 중 평가 최고점을 받아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인센티브로 담당 학예사가 해외박물관 연수 기회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속초시립박물관 조직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박물관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속초시립박물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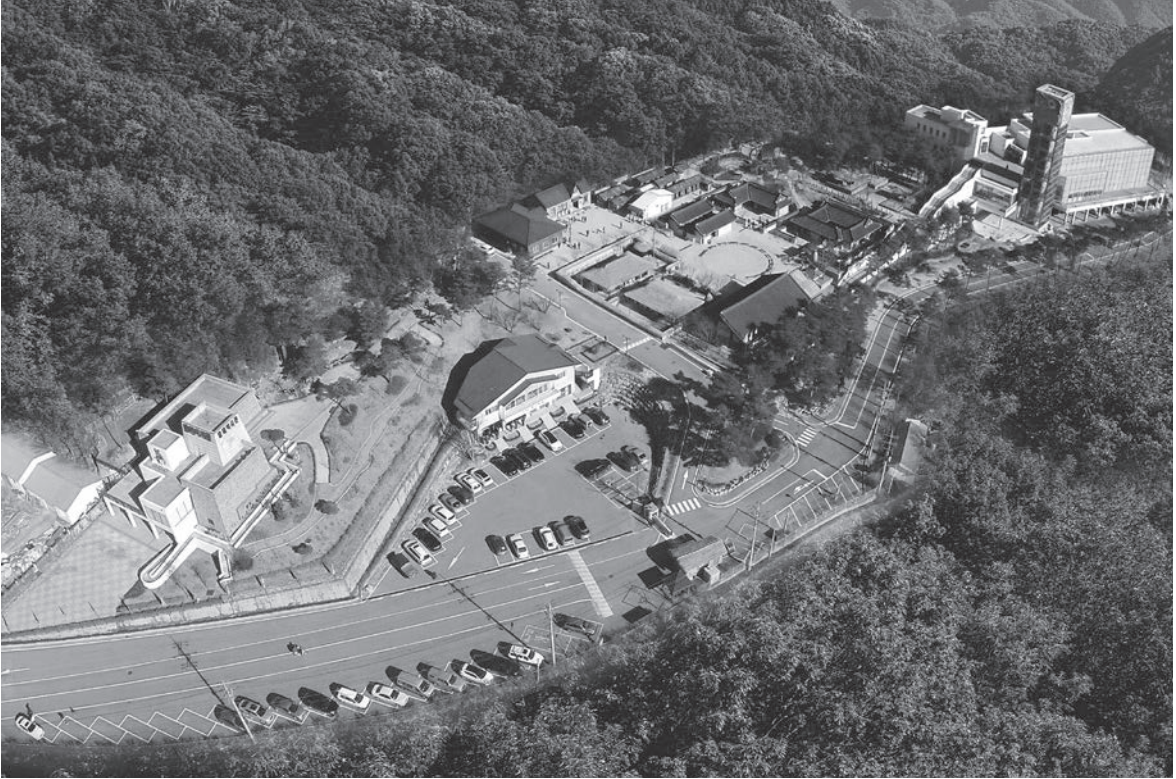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우수 박물관으로 이름나기까지 지역성을 살린 박물관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의 배경과 과정

속초시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이후에 피난민의 대거 정착과 어업의 활성화로 인해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었으며, 설악산 관광의 활성화로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로 발전은 하였으나, 역사적 기반이 약한 신흥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시민들은 향토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 4월 29일 속초문화회관 1층에 220.97m² 규모의 속초시 향토사료전시관을 개관하게 되면서 우리고장의 역사는 물론, 조상들이 남긴 향토문화재에 대한 우수성을 인식하고 아쉬우나마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속초시는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갖춘 국내 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자연관광자원 위주의 관광산업과 정책은 명



승·경승지의 관람과 더불어 지역의 고유문화를 체험하는 관광패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실향민의 도시로 알려져 있듯이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내려와 정착한 피난민들이 만든 고유한 실향민문화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문화가 되었지만 실향민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향민 1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도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1999년 강원관광엑스포는 속초를 명실상부한 한국 제일의 관광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에 속초시는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관광자원의 개발을 위

하여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라는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속초역사와 더불어 향토민속문화의 연구와 보존의 기반이 될 속초시립박물관 건립과 실향민문화의 복원과 전승을 통한 문화체험장이 될 실향민문화촌의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2001년 기본설계, 2002년 실시설계, 2003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 11월 4일 속초시립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현재 속초의 역사·실향민문화·어린이 문화체험 전시실 등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립박물관”과 이북5도가옥·피난민가옥 등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실향민문화촌”, 발해의 역사·고분전시실 등 지하 1층 지상 1층인 “발해역사관”을 비롯한 3개 분야 연건평 6,244m²로 운영되고 있다.

3. 지역성을 살린 박물관 운영과 성과

가. 상설전시의 개편

1) 제3전시실(우리조상의 삶과 도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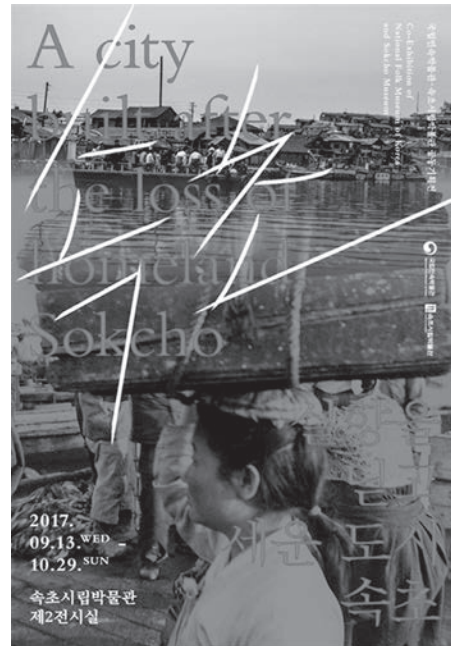
속초시립박물관 제3전시실은 악천후 시 체험 프로그램 행사장으로 주로 활용하던 박물관 1층 중앙홀에 2013년 11월에 설치하였다. 제3전시실은 “우리 조상의 삶과 도구”라는 주제로 우리민족의 통과 의례와 속초시의 민속예술인 도문농요, 든대질놀이, 속초사자놀음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강원도 내 박물관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민속체험실로 만들어졌다. 제3전시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로부터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전시실이다.

2)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

2017년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속초시립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란 주제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개최한 공동기획전으로 6·25전쟁이라는 민족사의 커다란 아픔을 딛고 실향민들과 함께 일군 속초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기획전이였다.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던 ‘속초리’가 어업의 활황과 피난민의 유입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또한, 설악산 개발과 함께 발전하게 된 관광 산업으로 도시는 새로운 성장의 방향을 찾게 되었듯이, 실향의 한과 통일의 열망을 가슴에 담아 두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실향민과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속초의 근·현대사를 주제로 하는 전시였다.

K-museums 공동기획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 박물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호 협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 문화를 발굴



하여 소개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활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실향민의 도시’를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아울러, 어업과 설악산 관광으로 성장해 온 속초의 과거를 조명하여,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속초의 미래상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속초를 일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배’, ‘명태낚시’, ‘물지게와 물통’ 등 유물과 사진, 동영상 등 140여 점을 선보이고 있고, 상설전시로 전환하여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지역색을 잘 나타내는 전시실로 각광을 받고 있다.

3) 외옹치 및 청호동 출토유물의 전시

속초시립박물관은 청동기시대 유적지인 조양동 유적을 속초역사의 시작으로 전시실을 구성하였다. 조양동 유적 출토유물과 설악산 인근 및 교동 고분 등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2005년 속초시립박물관 건립 당시 유물을 환

수하여 전시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여도 아닌 복제를 하여 전시하였다.

그러던 중 롯데리조트의 개발로 대포동 외옹치에서 신석기시대 유물과 청호동 I-PARK 아파트 건설부지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과 철기시대 주거지가 대거 발견되면서 속초의 역사를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그래서 속초시립박물관은 두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여, 시민의 향토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통의 길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속초시립박물관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신청을 하였으나, 보존처리 전문학예사의 부재로 두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을 대여하는 형태로 박물관 2층 제1전시실에 전시하게 되었다.

외옹치 유적은 작살, 석거형 석기, 결합식 조침 등 수정 및 석영제 석기를 비롯하여 발형·호형토기 등 신석기시대 유물 119점을 2016년에 전시하고 있으며, 청호동 유적에서 출토된 밀개, 굽개, 썰기 등 후기 구석기시대 석기와 경질무문토기와 같은 철기시대 토기 등 94점을 비롯한 학술유물 5,678점을 활용하는 전시공사를 2019년 2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나. 기획전시회 개최

1) 그리운 고향, 두고 온 산하

(사진으로 보는 북녘 땅)

이산가족의 1세대들이 고령인 관계로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향민의 가슴 멧힌 이별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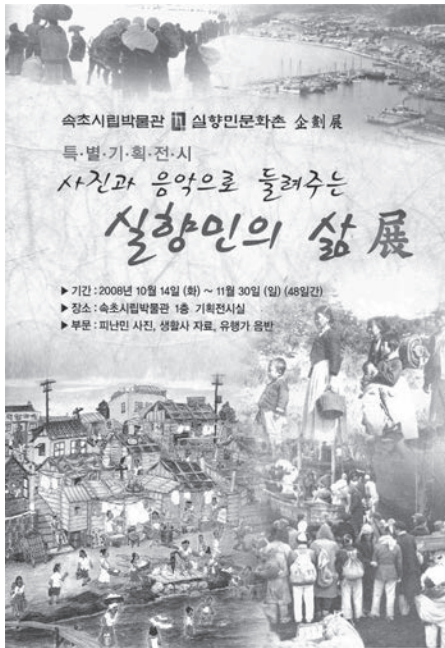
래서 잊혀져가는 고향산천의 사진전시를 통해 그리운 고향의 정취를 되새기고 아들, 손자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가족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비록 전시된 엽서 사진들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지 경영의 정당화를 위한 미화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전쟁 이전의 풍경사진은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전쟁 이전의 고향이고 평화로운 고향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 2007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엽서 사진과 책자 266점을 전시하였다.

2) 이형록 사진전

이형록 선생이 1950~60년대에 신선희 회원들과 함께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들을 누비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아흔이 넘은 이형록 선생의 사진 여정을 되돌아보고,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생의 노고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강사진박물관이 주최하여 국립춘천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양구문화원, 원주역사박물관의 순회전시를 통해 박물관 및 문화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강원도민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길 바라는 목적도 가지고 순회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속초시립박물관은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진 40점을 전시하였다.

3) 사진과 음악으로 들려주는 실향민의 삶

고향을 잃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통일의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아온 실향민의 고단하고 애절한 삶의 이야기를 피난과정의 사진과 당시의 유



행하던 유행가를 통해 들려주고, 제2의 고향에서 펼쳐진 가난과 그리움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노력으로 경제적인 삶의 향상은 가져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실향민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남아있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온 실향민의 삶과 그들의 바램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기획하였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향민들의 삶과 관련된 책, 생활용품, 각종 증명서, 음반과 사진액자 등 397점을 전시하였다.

4) 6·25 기록으로 말하다

1950년 한국전쟁(6·25)이 발발한 지 반세기를 지나 5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흘렀어도 전쟁의 아픈 기억과 슬픔은 여러 가지 기록의 형태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6·25 기록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한 기획전

은 6·25 전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굴곡의 표현을 재조명함으로써 6·25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하였다. 6·25와 관련된 책, 생활품, 증명서, 참전 기념품 등 343점과 실향민 관련 사진 액자 40점 등 총 383점을 2009년 6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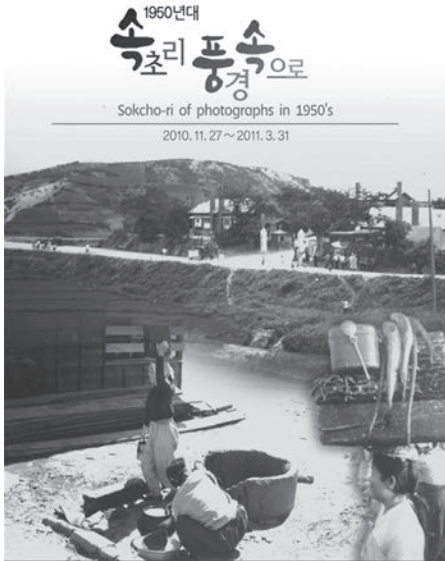
5) 피란의 추억과 실향민의 삶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을 맞아 전쟁의 아픈 기억과 고된 삶을 딛고 살아온 실향민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찾기 행사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시작, 개성공단 입주 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만큼이나 실향민의 가슴 또한 가족과 고향에 대한 회한으로 멎들어 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살아간 실향민의 삶을 통해 전쟁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6·25 당시 피난민 사진과 UN군 참전을 기념한 스카프, 봉제 인형을 비롯하여 실향민들이 사용한 생활사 자료 등 128점과 동문성 前속초시장이 소장하고 있는 1950~1970년대 속초지역 실향민 생활 사진 50점 등 178점을 2010년 6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시하였다.

6) 1950년대 속초리 풍경 속으로

1950년 10월 1일 국군은 38선 이북을 수복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서 기증유물 특별전



하였으며, 속초는 1954년 미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당시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 되었으며, 이후 1963년 1월 1일 속초시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의 속초시 풍경사진을 통해 우리시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속초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Paul Fancher가 기증한 1950년대 속초지역 풍경사진 53점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군 참전 기념품과 6·25 관련 자료 64점 등 총 117점을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하였다. 한편 폴 뷰포드 펜처 (Paul Buford Fancher)가 1953~1954년 미군정 당시 속초에 주둔하면서 촬영한 다양한 풍경사진(슬라이드 필름 포함) 272점을 속초시립박물관에 영구 기증함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1950년대 속초의 지리 및 역사·문화 연구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속초시민의 자긍심을 고

취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2010년 11월 26일 수여하게 되었고, 기증 사진을 도록으로 발간하였다.

7) 다시 보는 금강산

금강산은 설악산과 함께 백두대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명산이다. 회양, 통천, 고성, 인제에 걸쳐 있으며,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여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구분되고 있다. 금강산은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이 각각 달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이 금강산 관광을 빌었다. 설악산과 함께 관광명소로 살아갈 금강산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연계관광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박물관에 소장 중인 금강산 관련 유물(서적류 위주)을 간단한 설명 패널을 첨부하여 이동식 전시장을 설치하여 전시하고,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엽서첩(원산 덕전사진관 발행 4종 48매) 스캔하여 전시하였으며, 전시장 가운데에 금강산 퍼즐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금강산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3월 1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시된 자료는 141점이었다.

8) 속초시정의 가까운 옛날

(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

양양 북쪽의 작은 마을이던 속초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1963년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이 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현재는 환동해시대의 중심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전시는 괄목상대하게 발전한 속초시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기회이다. 청초호변의 작은 마을

에서 국제도시로 성장해 온 과정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속초시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속초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사진 선별은 폴 팬처, 레버렛이 찍은 1950년대 속초 지역 사진 중 속초시의 발전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최구현 등이 찍은 1960~1980년대 속초 지역 사진 중 앞 시기의 사진과 더불어 현재와 비교 가능한 사진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속초시의 최근 항공사진 등 60점을 선별하고 속초지역의 변천 모습을 연대순으로 진열하고 같은 지역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현재 사진을 함께 진열하였다. 2013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전시와 함께 전시 유물 중에서 상징성이 있는 사진을 선정하여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면서 속초시의 옛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슬라이딩 퍼즐 놀이 체험공간도 마련하였다.

9) 명산 설악산 특별전

설악산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 수 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다. 설악산은 오늘도 그 자리를 말없이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여도 산은 팔을 벌리고 오라하고 그 품에 안아준다.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또한 그 안에서 사색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명산 설악산 특별전은 설악산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봄으로써, 설악산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지켜 후손들에게 잘 보존하여 전달하여야 할 세계유산

임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설악산 특별전은 전근대로부터 현대까지 설악산과 연관되어 있고 직접 대상으로 삼은 기행문, 전적류, 각종 보고서, 발간물(소설, 시집 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명산 설악산의 기행문학과 민속문화”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을 전시하여 설악산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또한 설악산과 관련된 인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설악산의 문화관광자원화와 개발의 초석을 쌓은故이기섭 선생님과故최구현 선생님 등 설악산과 떼어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유품, 사진 등을 전시하고 그들의 기행문(“설악산 개발사” 등)을 활자화하여 설악산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설악산 제례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설악문화제의 팜플렛, 리플렛, 뺏지, 기념품 등을 전시하여 설악산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관광의 일번지로서 국내 최고의 관광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설악산의 기념품인 설악산 관련 액자, 뺏지, 메달, 기념품, 펜던트 등과 최구현, 성동규 등의 설악산 풍경 도록 등 569점을 2014년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하였다.

10) 속초 나룻가 사람들의 삶과 풍경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 “속초 나룻가 마을의 삶과 풍경”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로 속초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속초의 근간을 이룬 것은 속초 수산업의 발전 때문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강점기 속초항의 축항과 대포에서 속초리로 어업중심지의 변화,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의 대거유입과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속초는 동해안의 어업전초기지로 성장하고 1963년 속초시로 승격

하게 되는 과정을,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까지 속초 수산업의 역사를 풍어, 흥어, 속초항의 축항, 어업조합, 해난사고 등 각종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故최구현 선생이 렌즈에 담은 속초항, 출항준비, 만선 귀항, 오징어 작업 등 어촌마을의 풍경과 어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舊속초수협이 모습과 이전되기까지 사용했던 각종 행정, 행사 용품들도 전시하고, 대한뉴스에 소개된 속초의 어업과 해난사고 등을 간략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업전초기지였던 속초의 나릿가 사람들은, 풍어의 기쁨과 함께 해난사고의 아픔을 간직한 채 고단한 삶을 영위한 그들의 삶을 통해 속초의 발전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데 목적을 두고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1) 학창시절의 낭만, 설악산 수학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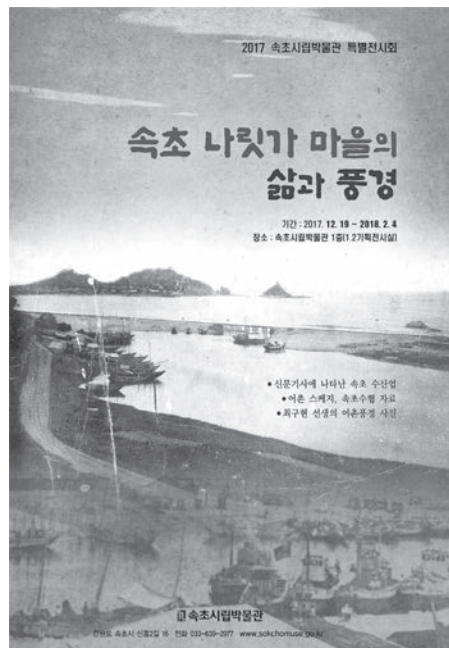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2월 25일 까지 계획한 “학창시절의 낭만, 설악산 수학여행”을 주제의 기획전시회로, 1900년대 대한제국기부터 근대학교 교육의 도입과 함께 철도개통으로 시작되고 광복 후 일반화 되었던 수학여행이,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설악동에 대규모 국제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전국 제일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설악산 관광의 초창기 관광객의 모습과, 초·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잊지 못할 낭만으로 남아있는 설악산 수학여행 면모를, 당시 사진과 기념품 등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설악산이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의 관광객의 모습과 여관 등 관광시설의 옛 모습을 故최구현 선생의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팬던트, 열쇠고리, 뺨지 등

수학여행단에게 인기가 많았던 기념품의 전시를 통해 국내 제일의 수학여행지로 인기 있었던 당시 설악산의 관광을 느끼게 하였다. 아울러 1970~1980년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설악산 흔들바위와 비룡폭포를 트릭아트로 만들어 관람객들이 학생교복을 착용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체험의 공간도 마련하였다.

다. 문화체험행사

1) 피난살이 및 실향민문화체험행사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6·25)을 맞이하여 전쟁세대에게는 추억을,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전쟁의 실상과 아픔을 가르쳐주어 전쟁세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5일을 전후하여 피난살이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내용으로는 분단의 벽에 통일염원의 표어·그림그리기, 피난민 복색체험하기, 전쟁영화상영, 피





난음식 만들기 체험(주먹밥 만들기, 보리개떡 만들기), 인식표 만들기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속초의 대표 문화축제인 설악문화제와 연계하여 실향민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속초시립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주제가 실향민문화이고, 실향민문화촌의 시설을 이용한 실향민사랑방, 실향민의 대표적 음식인 아바이순대 만들기, 각 종 젓갈을 전시하고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속초에서 함경도 실향민에 의해 최초로 연희된 속초북청사자놀음도 공연하고 있어, 실향민의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토문화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피난 내려오다 유명을 달리한 실향민과 고향 방문을 염원하며 역사의 뒀안길로 살아진 실향민을 위해 함상합동위령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 실향민문화축제

피난민의 정착과정에서 형성된 실향민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실향민의 정체성 확보하고, 잊혀져 가는 실향민의 삶과 애환을 재조명하고, 실향민(2·3세대)과 북한이탈주민간 화합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성을 살려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 마련하여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2016년 처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세 번째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축제콘텐츠를 보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피난민의 정착과정에서 형성된 실향민문화

를 계승·발전시켜 실향민의 정체성 확보하고, 잊혀져 가는 실향민의 삶과 애환을 재조명하고, 실향민(2·3세대)과 북한이탈주민간 화합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성을 살려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 마련하여,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2016년 처음 축제를 개최하여 2018년 세 번째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축제콘텐츠를 보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3) 고향의 밤 콘서트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및 고향의 밤 콘서트는 2008년 최초로 시행하였다.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된 박물관 야간개장은 여름 피서철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는 박물관을 휴게·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며, 향토문화예술의 홍보는 물론 공연예술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후 6시 이후 입장하는 관람객에는 무료관람을 실시하였으며, 박물관과 발해역사관의 전시실을 개방하고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에서는 고향의 먹거리 체험으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무료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속초시립풍물단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속초사자놀이 등 향토문화예술 공연이 있었고, 공연 후에는 문화촌 놀이마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야간개장 및 고향의 밤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고향의 밤 콘서트에는 속초사자놀음과 속초시립풍물단 풍물공연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단체가 참가하는 형태로, 속초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름 피서철에 박물관의 야

간공연상품으로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적·창의적 문화 활동이 증대되고,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시장의 확대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코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국·공립 박물관에는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도 2007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개관이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문화학교

속초시립박물관 개관이후 최초로 시행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여름(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이다. 속초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처음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을 매일 등·하교시키는 부담을 덜고 보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박 3일 캠프형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문화학교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우선 박물관(문화촌) 전시실 관람과 속초시립풍물단 공연 관람 및 사물놀이 배우기, 속초사자탈 만들기, 쿠킹 클레이, 창작 연과 부채 만들기 등 공예 체험과 강원도 내 박물관과 전시실을 답사하고 체험을 하며 영화도 보고 실향민문화촌 이북5도가옥에서 숙박체험도 병행한다.

2) 토요일 어린이 아틀리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주 5일제 수업이 정착하면서 학교 교과목과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예술적 표현능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매월 토요일 오후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0명씩 수강생을 모집하여 “토요일 어린이 아틀리에”를 운영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실향민문화촌의 체험학습을 통해 전통예술을 이해하고, 학교 수업과 예술문화를 접목시켜 문화적 표현능력과 감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국어, 수학, 음악, 역사, 체육, 미디어를 예술 활동과 접목하는 감상·체험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 고유의 색·빛·공간·움직임·소리 등의 주제를 통해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이해하고 응용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009년 상반기 주요프로그램은 예술적 기본수업으로 수학적 요소와 통합한 수업으로 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이 공간 속에서 다양한 점·선·면·도형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색보자기 만들기’와 ‘민화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색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전통춤과 마음을 배워 전통 움직임을 서양 움직임에 응용해 보는 수업, 전통 악기소리를 시각적 또는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그림 속의 소리’도 진행되며 이밖에 전통인형 연극, 사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도 열렸다.

3) 꿈다락 박물관 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공모한 2015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도란도란, 나의 박물관 이야기’에 선정되어, 속초시내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주 5일제 수업을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말을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리 박물관은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피난민이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랠던 북청사자놀음을 통하여 그들이 얻고자한 치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상을 현대화시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만의 힐링법을 찾아보는 수업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코자 계획하였으나, 6차시 연속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과 학원 수강과 개인 가족상황 등으로 수강생 확보가 여의치 못해 당초 5기수를 모집하는 것에서 3기수를 모집하고, 인원도 10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아바이·아마이 미니공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박물관 백세인생-속초사자놀음 알고 배우기-’, 2018년에는 ‘박물관 백세인생 - 속초사자놀음 수 놓

다'이 선정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속초사자놀이 탈 공예와 춤 그리고 복식공예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정년을 마치고 사회활동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의 숨겨진 감성과 창의력을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시절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공예작품 창작활동과 민속춤을 통해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년 개관 이래 10년 동안 꾸준히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였지만, 대부분이 어린이들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상 영역을 어르신들로 확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강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인원도 늘고 어르신들의 교육 열정으로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을 시작할 때는 약간 서툰 모습을 보인 어르신들도 시간이 갈수록 향상되는 본인들의 역량을 보며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어르신들을 보며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박물관 및 속초시 행사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길 위의 인문학

지역의 향토 민속문화와 분단 현대사 교육을 통해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이북 민속문화의 보존과 실향민 애환을 체험하면서 속초시 문화기반시설의 중심지인 속초시립박물관의 활성화는 물론 초·중학교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문화예술 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공모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에 응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4회 선정되면서

속초 시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먼저 속초시립 박물관에 도착하여 실향민문화촌내 이북5도가옥과 피난민가옥을 견학하고 속초역에서 실향민 다큐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속초시립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속초어업의 발전과 실향민 초기 정착과정에 대한 전시를 관람하였다. 문화촌과 박물관의 관람이 끝나면 속초북청사자탈 또는 사자놀음에 등장하는 양반탈과 북청사자 저금통 만들기를 체험한 후 북청사자춤과 통소를 배워보면서 실향민의 민속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점심 식사 후 청호동 아바이마을 답사를 통해 실향민 삶의 모습과 음식, 언어 등을 견학하고, 실향민들의 대표적 음식문화라 할 수 있는 젓갈을 직접 만들고 시식을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이 프로그램운영으로 2016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6) 속초학(문화아카데미)

2015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교육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속초시립박물관 문화아카데미는 그 동안 초등학교 및 일부 일반 여성에게 편중되어 운영되어 온 속초시립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의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다. 향토의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역사의식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물론 박물관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향후 아카데미 교육생을 박물관의 도슨트로 선발·육성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박물관의 전시해설 및 행사운영자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문화나눔 봉사의 실천을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만드는 목적도 함께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료생들은 “속초문화사랑”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속초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솔선 참여하고 있다.

마. 조사 및 연구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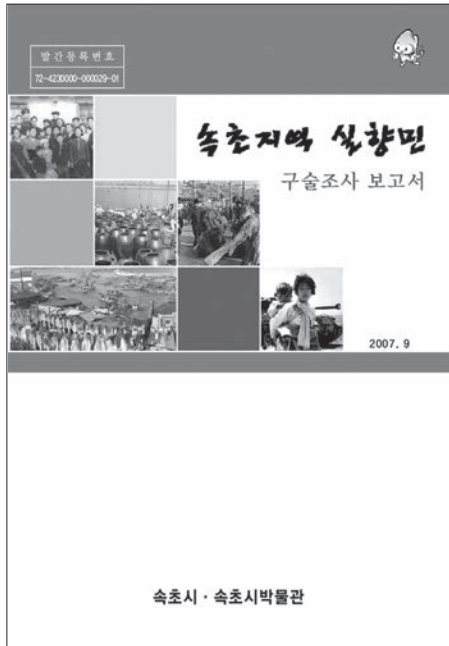
1) 학정건축일기 번역

학정건축일기는 매곡 오윤완 선생이 1934년 2월 15일부터 학정(鶴亭 / 지금의 鶴舞亭)을 건립하는 과정을 기록한 작업일지와 인물별 노동력

제공일지, 정자건립 재료비, 준공기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애를 기록하고, 학정건축일기와 학무정 시판을 번역하였으며 학정건축일기가 갖는 건축문화사적인 조사 연구와 함께 학무정의 역사와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학정건축일기를 영인 첨부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학무정 시집 번역 및 학술연구

학무정시집은 1981년 한국한시연구회(경주시 황오동 소재)에서 1981년에 펴낸 시집이다. 이 시집에 실린 한시는 모두 매곡 선생을 기리는 뜻을 담고 있으며, 원문을 포함하여 전체 448수를 수록하였다. 일정기간 작품공모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한시 작품을 쓴 작가는 강원



도 뿐 만 아니라 서울, 제주, 일본까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출한 한시르 초선과 결선을 거쳐 장원상 1명, 2등상 2명, 3등상 3명, 4등상 4명, 5등상 12명, 가작 64명, 준 가작 343명이 선정되었다. 이 시집에는 찬조시 10수도 수록되었다. 학무정 시집 전문을 국역하고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활자화하였으며 학술적 연구·분석을 통해 사료적 가치와 역사·문화적인 가치도 판단하였으며 학무정 시집 전문을 1:1로 영인하여 수록하여 2011년 2월 21일 발행하였다.

3)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사 조사·연구

속초시 발전의 근간이 된 실향민들의 삶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향민 구술사 조사연구를 시작하였다. 1000만 실향민의 애환과 삶을 역사적 기록으로 담아 남겨 남북통일 후 가족, 친지간 혈맥을 이어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과 실향민 문화의 원형을 보존

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향민이 기억하는 피난과 정착과정에 대한 구술조사와 함께 영상으로 제작하는 실향민구술사 조사는 2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구술조사와 함께 영상을 촬영한 실향민이 41명, 구술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에 참여한 실향민이 227명이었다. 속초시에 거주하는 실향민에 국한된 사업이었으나 이 사업을 기반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사업을 2008년~2009년까지 진행하여 강원지역 이북도민 피난민과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북도민에 대한 피난과 정착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4) 강원지역 이북도민 정착사

강원지역 이북도민 정착사 편찬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난과 정착과정을 집대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북도민의 노력과 역할을 소개하여 이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 각 시·군별로 산재한 이북도민의 역사·문화·사회 전반의 조사·연구를 통해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전승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제1장은 강원지역 이북도민의 정착사로 해방부터 한국전쟁 이전의 강원도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강원도의 변화과정, 이북도민들이 강원도에 정착하게 된 동기와 특징, 한국전쟁 이전에 강원도의 취락과 피난민에 의해 형성된 취락과 변화과정, 이북도민들의 경제활동을 수록하였다. 제2장은 강원지역 이북도민의 생활문화로 속초 수복기념탑과 갯배에 얽힌 피난민의 정착과정과 생활과 민속예술 그리고 이북도민의 정착마을 현황을 수록하고, 제3장에서는 이북도민의 정착이 강원

도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이북도민회 활동 현황과 재강원함경도민회 본부 및 지부 역원 명부를 수록하여 2009년 5월 30일 발간하였다.

5) 속초사자놀이 전승·보존체계 연구

속초사자놀이 전승·보존체계의 연구는 속초에서 전승·보존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의 원형을 복원하여 향토민속예술을 진흥하고 전통 공연문화상품화를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사업의 과업내용을 보면, 북청사자놀이가 속초에서 처음 연희하게 된 정치·경제·사회·민속적 기반과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이 원형과 속초에서 연희된 북청사자놀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속초에서 처음 연희된 북청사자놀이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음악, 무용, 등장인물, 등장 탈, 소품 등 각 놀이과정을 고찰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이과의 탈과 놀이과정 등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현재 속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존회 구성현황, 보존·전승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속초북청사자놀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무형문화재 지정방안 등 보존·전승 대책과 지역 기관·단체의 역할 제시하여 향후 속초북청사자놀이의 공연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속초사자놀이 전승·보존체계 연구 보고서는 2011년 6월 11일 발간되어 속초에서 연희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를 대표하여 출연하는 민속예술로서 손색이 없었음을 증명하였고, 향후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등 속초사자놀이 보존과 전승은 물론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

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한 조사보고서라 할 수 있다.

6) 속초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략 연구

속초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략 연구의 목적은 속초시의 문화예술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조사와 속초시만이 갖은 독창적이고 정체성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발굴하여, 중·장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간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기초 현황과 환경을 현장 조사하고 분석하여 속초시의 중장기 문화예술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속초시의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연구의 성과로 속초시와 속초시립박물관의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정책 과제 및 역할을 설정하였고, 지속가능한 속초문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방법을 제시하였다.

7) 명산 설악산 기행문학과 민속문화

명산 설악산 기행문학과 민속문화 학술연구용역은 설악산을 주제로 한 기행문학과 민속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속초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설악산에 대한 역사와 인문환경을 정립하고, 세계적 명산으로 자리매김한 설악산을 문학과 민속학적으로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9월 25일 발간된 학술연구 보고서에는 설악산 기행문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조선시대 설악산 탐방기행문을 해제를 붙이고 번역하였으며 원문을 보고서에 실었고, 근현대 설악산 탐방기행문의 내

용도 게재하였다. 또한 설악산 산악민속문화에 대해서는 설악산 심메마니 채삼민속을 입산절차, 채취과정, 채삼금기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의 사용례와 산악지명과 관련된 설화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설악산과 백두산의 채삼민속을 조사 비교하고 있다.

바. 속초시립풍물단 운영

속초시립풍물단은 속초시립박물관 개관과 함께 창단하였다. 2005년 4월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개관 준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 박물관과 차별화된 운영과 문화체험 위주의 살아있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을 창단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9월 27일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규칙』과 『복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처음 6명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10명의 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상설공연

속초시립박물관 개관 시 매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을 하고 있으며, 관람객 유·무에 상관없이 공연을 하고 있다. 공연 장소는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에서 상모판굿 또는 사물놀이를 25분 정도 공연하며, 연간 약 60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에서 관객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함에 따라 특히 수학여행단으로부터 인기가 많으며, 속초시립풍물단 공연시간에 맞춰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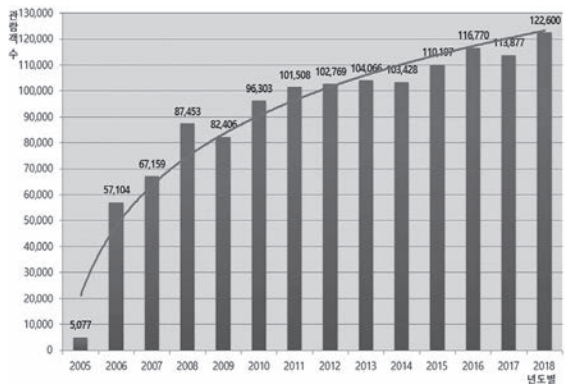
2) 협연활동

속초시립풍물단의 속초 관내·외에 개최되

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에 초청되어 협연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있어 축하공연을 의뢰하면 상모판굿과 사물놀이 공연은 무료로 협연하고 있으며, 이 밖에 대북과 모듬북을 요구하거나 리듬&파이터, 키다리 풍물놀이를 공연을 요청하면 공연비로 500,000원~1,000,000원의 협연수수료를 받고 속초시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속초시를 벗어나 강원도 각 지역의 문화예술행사와 축제에서 초청공연을 하고 있어 속초시를 홍보하는 홍보사절단과 속초문화예술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 강습활동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국악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속초문화원 등)에서 강사로 초빙되어 강습활동을 하고 있다. 주된 강습내용은 사물놀이(장구, 팽과리, 북, 징 등)와 모듬북 연주, 통소 연주 등이다. 이러한 강습활동은 속초시립풍물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연과 속초시립박물관의 홍보와 더불어 국악분야의 후진양성은 물론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속초시립풍물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회 속초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는 2006년 7월 1일 오후 19시에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창작활동을 통해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함은 물론 속초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다양한 볼거리 문화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5) 향토문화예술 보존과 전승

속초시립풍물단은 고유의 연주활동과 향토문화예술 보존과 전승 활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풍물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향토문화예술에는 ‘속초사자놀이’, ‘속초도문농요’, ‘속초도리원농악’을 들 수 있다. 속초사자놀이 전 과정에서 사자춤과 격쇠, 통소연주, 반주 일반을 담당하면서 속초사자놀이 공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위치를 갖고 있으며,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를 대표하여 출연하고 있다. 속초도문농요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존회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소리 외에 반주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속초도문농요의 발표는 물론 전수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4. 속초시립박물관의 발전방향

속초시립박물관 연간 관람객이 2018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었으며, 관람료 수입도 1억 원을 넘어 114백만원을 기록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이 10만 관람객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특별히 국보가 전시되어 있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있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구 10만이 안 되는 속초 같은 작은 도시의 공립박물관에서는 연간 10만명의 관람객을 확보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의 관람객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1월 4일 개관 이래 2018년까지 누적 관람객 1,270,717명으로 2006년에는 57,000여명, 2011년 처음으로 100,000명을 넘었으며, 2015년 110,000명을 넘었고, 2018년 120,000명을 처음으로 돌파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아마도 속초 향토색이 짙은 전시와 문화체험행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속초하면 설악산, 동해바다 외에 실향민이 떠오르는데, 속초시립박물관은 전시나 체험행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실향민 문화이다. 속초를 대표하고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한국전쟁 이후 수복된 도시라는 점과 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생활문화도 또한 독특한 것이어서 실향민문화 중심의 전시와 행사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기에는 속초시립박물관이 나아갈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박물관으로 인기가 있었던 만큼 향토 역사와 문화 체험과 전시를 극대화하고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로 문화체험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가. 지역성 살린 기획전시회의 개최

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바꾸기에는 많은 사업

비와 시간이 필요하여, 실제로 상설전시를 개편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공립박물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아, 전국 대부분의 공립박물관들은 보편적으로 10년 내외로 상설전시를 개편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한 번도 상설전시를 개편하지 않은 공립박물관들도 많이 있다. 속초시립박물관도 2005년 11월 개관 이후 상설전시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 대신 ‘우리 조상의 삶과 도구’,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 ‘외옹치 출토유물의 전시’ 등 틈틈이 상설전시 코너를 변경하면서 상설전시실을 개편해 오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전시자료를 소개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9년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포항과 대포만세운동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과 기증협의 중인 1950년대 속초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할 사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와 함께 박물관 관람객에게는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한 지역작가초대전은 한국화, 사진, 서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단체와 동호회가 2019년에는 10개 단체가 전시회를 희망하면서, 속초시립박물관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육성

박물관 자체적으로 자기 박물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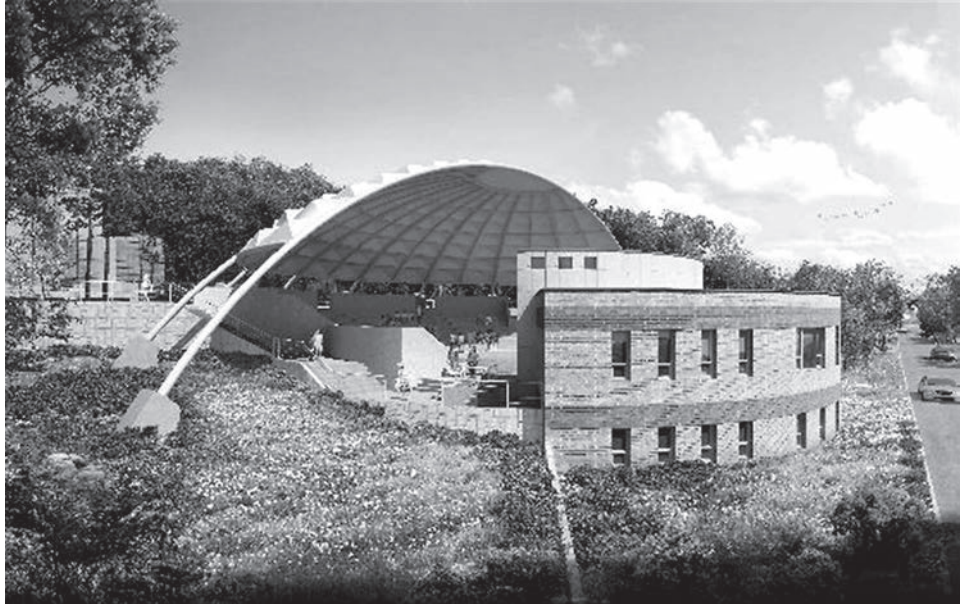
박물관은 극히 많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즉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박물관 자체 예산이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매년 2~3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특히 박물관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연속성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의 소양을 쌓고 박물관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 및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예산에 꾸준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속초시립박물관은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어린이 문화학교, 속초학(문화아카데미) 외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꿈다락 박물관 교실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면서 박물관을 속초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박물관의 정의와 업무에 있어 교육부문을 추가하였다.

다. 지역출토 유물의 환수와 전시 활용

대포동 외옹치에서 롯데리조트를 개발하면서 발견된 속초 최초의 신석기 유물은 그 동안 사적 제371호 조양동 유적을 통해 속초의 역사가



전통문화예술 야외공연장(조감도)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외옹치 신석기 유물의 발견은 속초의 역사를 신석기로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청호동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따라 발견된 후기 구석기 유적과 철기시대 주거지가 강원 영동지방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2만 년 전을 전후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고, 철기시대 주거구조와 생활상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면서 청동기 시대에 국한되었던 속초의 선사시대를 다시 정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속초시립박물관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에 직접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장고의 협소, 재질별 수장시설의 설치 무엇보다도 보존처리 학예사의 부재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부득이 국립춘천박물관으로부터 1년 단위로 유물을 대여 받는 형식으로 외옹치 출토 유물과 청호동 유적 출토유물을 전시하게 되었다.

속초는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도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개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속초의 정체성을 만들고 역사적 가치를 고민하는 일이 박물관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춘천-속초간 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은 비록 유물유적을 구제하는 발굴일지라도 발견될 유물유적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그나마 향토유물유적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있을 것이다.

소장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전문 학예사가 배치되는 박물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도 보존관리 전문 학예사의 배치를 통해 국가귀속문화재 보존·관리 지정을 대비하고, 수장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출토 유물을 환수하고 지역색을 살린 박물관 전시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 속초시립박물관의 리모델링 준비

속초시립박물관이 개관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건물과 공조시스템 전기시설, CCTV, 향온향습시스템, 전시영상시스템 등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박물관 시설개선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주변지역에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 숲 박물관 등 전시시설이 건립되었으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전통문화 체험 야외공연장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 건물은 유리커튼월 시스템을 적용해 햇빛과 냉난방에 취약하며, 전기를 주요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조시스템과 향온향습시스

템은 선진시스템과 효율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IT기술의 발달로 전시시스템과 CCTV 기술, 영상제작 기술도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동안 수집된 전시유물과 지역에서 출토 유물 등은 속초시립박물관 전시시설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건립된 발해역사관을 비롯한 주변의 전시시설과 2019년 완공되는 전통문화체험 야외공연장, 예정되어 있는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관람동선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는 박물관 비전과 전략,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속초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3개 분야 시설의 리모델링과 운영방향, 주변시설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속초시립박물관의 현재와 20년 후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 특집 ”

엄경선

- 속초 갯배 1백년의 역사를 찾아서

김성하

- 속초 실향민 문화 현황과 속초사자놀이





속초 갯배 1백년의 역사를 찾아서

엄 경 선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1. 1930년 7월 부산일보 “속초 도선, 자동차와 우마차 운반했다”

갯배는 속초의 명물이다. 전국 어디 도시에 도심 한가운데에 손으로 끄는 도선(渡船)을 타고 물길을 건너는 곳이 있을까? 오직 속초에만 존재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갯배이다. 한때는 청초호 구수로 매립과 함께 갯배는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갯배는 지금도 아바이마을 북단 신평마을과 속초시내를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금 갯배 남단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 설악금강대교를 타고 중앙시장 입구까지 오려면 3.3km를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갯배를 이용해 중앙시장 입구까지 걸어오면 그 거리가 300m도 안된다. 속초시내 대표적인 두 관광명소를 이어주는 갯배는 직접 배를 끌어 손맛을 느끼는 체험관광상품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려 줄을 서서 갯배를 타고 청초호 구수로 물길을 건넌다.

갯배가 속초의 명물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아바이마을 실향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갯배는 실향민들의 통일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망향의 그리움을 삭혀온 아바이 실향민들에게는 시

내와 단절한 아바이마을을 이어주는 갯배는 남북의 단절을 극복하고 연결되어 통일을 이루는 실낱같은 희망을 상징한다.

속초의 명물인 갯배는 언제부터 운행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갯배가 속초 수복 후인 1950년대부터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갯배는 속초항 수로가 개설된 1930년대 후반에도 이미 운행되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갯배가 일제강점기 때 운행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해 주는 신문 기사 3건이 확인되었다.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갯배 운행 기사는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 7월 26일자 일본어 신문인 부산일보 5면에 실린 기사 속에서 갯배 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해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30년 7월 26일자 부산일보 5면 기사. 줄을 친 부분이 갯배(도선) 운행 관련 기사.

“시장 신설 축항 측량 / 활황 정(町) 속진(東津)”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는 현재 조선인은 3백호, 일본인은 2호(戶), 중국인은 4호로 밀집된 부락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27일자로 시장 신설 허가가 나서 도천면 소유 토지가 있는 2등도로 옆에 시장을 신설하게 되었다. 지금 매일 4,50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며 시장 부지를 정리하고 대부토지를 구획하는 등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속진(東津)은 양양군의 선박 출입항인 대포리에서 북쪽으로 1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속진호(東津湖) 부근은 수 정(町)의 모래땅으로 인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 중략 ...

현재 대포가 기선 발착항으로 정해진 이후에 일본인 거주자가 다수 머물고 소학교, 공립보통학교, 금융조합, 어업조합 기타 공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주변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가옥 건축의 공간이 많지 않다. 또한 항구 규모가 작아 간신히 어선들이 피난이 가능할 정

도이다. 풍파(風波)가 높으면 방파제를 넘어오기에 항구 안쪽도 위험하다. ... 중략 ...

속진(東津)은 1919년(대정8년) 이후 호수가 180호 이내였으나 지금은 1백여 호가 증가했다. 이번 시장 신설로 40여 호의 가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땅을 임대해 주고 있다.

속초호(東草湖)에는 면(面, 도천면)에서 경영하는 도선(渡船)에 의지하여 자동차는 물론 우마차도 운반해 왔으나 수년 전부터 호수 부근에 모래(砂)와 진흙(粘土)이 쌓여 통행상 장애가 있다. 양양읍 방면의 교통은 이용하기 편하나 속진 이북으로 토성, 죽왕 양면은 물론 북으로 고성군 일부와 고개 넘어 영서 방항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렵다. ... 이하 생략 ...

- 1930년 7월 26일자 부산일보 5면 기사

1930년 속초에 최초로 시장이 들어섰다. 2등도로 옆이라는데, 지금의 영랑동 옛 시장터 부근으로 추정된다. 속초에 3일, 8일 개장하는 5일장이 들어서면서 상업이 크게 발전할 걸 기대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기사 속에는 속초리와 속진(東津)이 같은 지명으로 나온다. 조선 말 1871년 발간된 관동읍지에는 양양군 소천면에 속초리와 속진리가 따로 존재했다. 그러나 1930년 양양군 지도에는 속진리는 없고 속초리만 나온다. 속진리가 속초리에 흡수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진(津)은 강이나 하천에 위치한 나루터를 뜻한다. 나룻배는 진선(津船) 또는 도선(渡船)이라고 했다. 속초의 갯배는 일제강점기에 ‘도선’으로 나온다. 1960년대에도 청호동 갯배 선착장을 ‘오구도 선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갯배는 ‘속진(東津)’이라는 지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속에 나오는 속초호(東草湖)와 속진호(東津湖)는 청초호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속진은 대포에서 북쪽으로 1리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10리 쯤 떨어져 있다.

갯배 운행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재정리해 보자. 1930년 속초 청초호 부근은 수천 평 이상의 모래 땅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했다. 양양군 도천면에서는 예전부터 이곳에 청초호를 건너는 도선을 운영해 왔다. 도선을 이용해 자동차는 물론 우마차도 실어 날랐다. 그러나 이곳은 수년 전부터 모래와 진흙이 쌓여 도선 통행에 큰 장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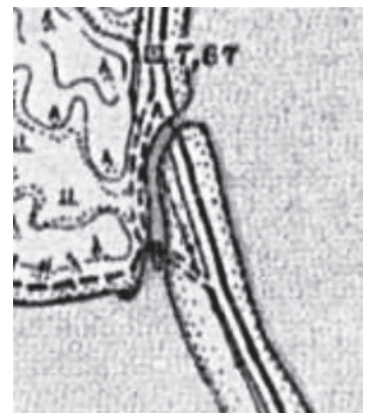
신문 기사를 통해 1930년보다 훨씬 앞서 자동차와 우마차를 실어 나르는 도선이 속초 청초호 하구에서 운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속초의 도선인 갯배는 언제부터 운행된 것일까?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다. 또 다른 단초는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2. 속초 갯배, 지도에 1915년 이전부터 운행 확인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 전역을 측량하여 5만분의 1 축척으로 지도를 발간했다. 이 지도는 현재 서울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국의 지도가 지역별로 분책되어 발간되었는데, 양양읍

도천면에 해당하는 속초지역의 지도는 ‘간성7호’의 “웅진(瓮津)”편에 실려 있다. 웅진(瓮津)이라는 지명은 지금 대포항이 있는 대포리(大浦里) 표기에 덧붙여 괄호 안에 나온다. 지도에는 위도와 경도의 위치값과 등고선에 따른 지형의 높낮이, 논과 밭, 초지, 모래사장 등 토지이용 현황과 관공서와 학교, 도로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인터넷으로는 저배율로만 볼 수 있어, 속초시립박물관 김만중 학예팀 주무관이 소장처인 종로도서관에 요청해 고배율 복사본을 확보했다. 고배율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초호 하구 물길 위에 배 모양의 지도 부호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현재 갯배가 운행되는 지점이다. 지도를 확대하면, 물길을 건너는 도선(渡船)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를 확대하면 속초리 청초천 하구에 배 모양의 지도부호가 선명하게 보인다.

1918년 일제가 발행한 양양군 도천면 5만분지1 지도.

지도를 보면 당시 원산-양양간 2등도로가 대포리를 거쳐 청초호 동남쪽 모래 해변인 반부평(半扶坪)과 동쪽 모래 해변인 사주(沙柱)를 한가운데 관통해서 청초호 하구 수로를 건너 속초리(東草里)로 이어지고 있다. 직선으로 뻗어 청초호 물길을 건너는 2등도로와 함께 물길 양 옆으로 우회도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배 모양의 지도 부호는 2등도로 우회도로가 지나가는 지점에 그려져 있다. 도선이 바로 2등도로 통행 보조수단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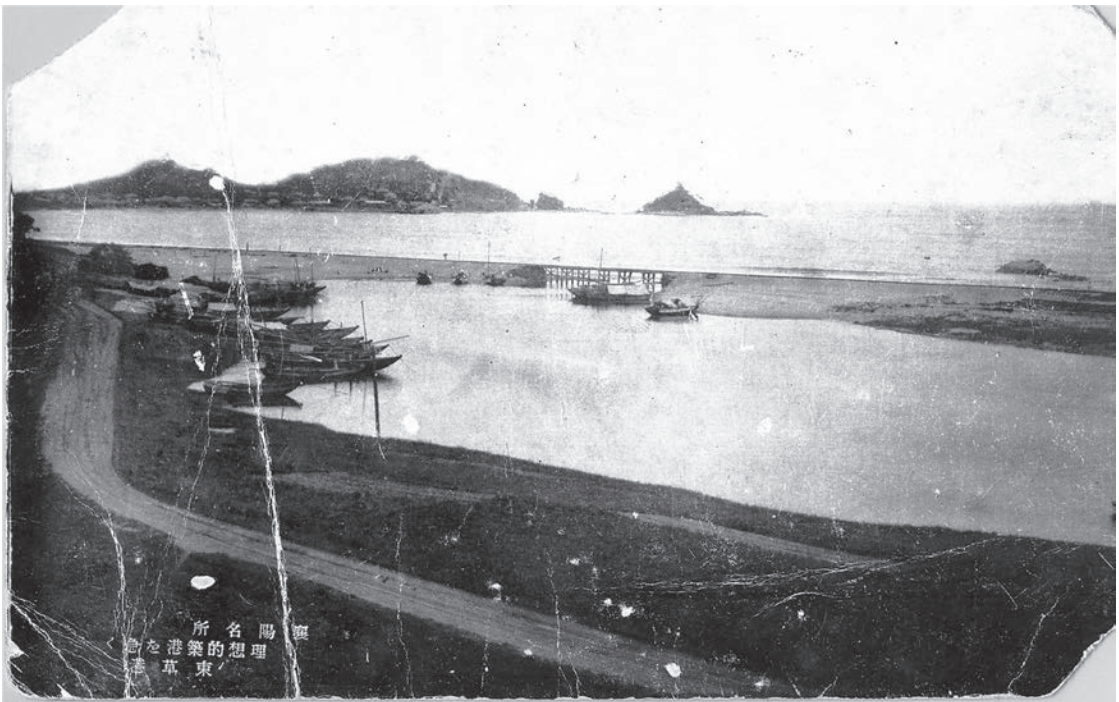
2등도로는 지금의 국도에 해당되는 중요도로이다. 1911년 4월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도로규칙”을 제정하고 전국의 도로 중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는 중요도로를 고시했다. 여기에 원산-양양간(元山襄陽間) 도로는 경성-양양간(京城襄陽間) 도로와 함께 2등도로로 고시되었다. 1등도로는 폭 4간(7.2m) 이상, 2등도로는 폭 3간(5.4m)이상의 도로이다. 2등도로는 자동차 2대가 교행 할 수 있는 도로이다.

당시 양양 지역 주요 도로에 도선이 표시된 곳은 속초리 청초호 하구가 유일하다. 지도에는 하천

이나 물길을 건너는 교량 지도부호는 많이 나온다. 2등도로구간에서 양양 남대천과 상운리, 청곡리, 포월리, 주청리, 용호리, 물치리, 쌍천(다리가 2개), 용천리, 천진리 도로에 교량 표시가 있다. 양양 남대천에서도 도선을 운행한 기록이 있다. 1930년 9월 15일자 부산일보 기사에서는 양양 남대천에 자동차나 우마차, 사람을 실어나르고 도선이 있어 돈을 받고 운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918년 지도에는 양양 남대천에 도선 표시는 없고, 교량 표시만 보인다.

원산-양양 2등도로 중 속초 해당 구간은 조선시대에도 양양의 강선역과 간성의 청간역을 잇는 중요 도로망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여러 금강산 유람기에는 청초호와 영랑호, 지금의 영금정인 비선대를 명승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청초호와 비선대는 이 도로 구간을 이용해야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양양 강선역에서 청간역까지 청초호 서편을 지나 원암역을 거쳐서 갈 수도 있었지만, 청초호 동편 길보다 소요시간이 더 걸리는 길이었다.

1918년 지도에 나오는 속초리 청초호 하구의 2등도로 우회노선과 도선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1929년 1월 속초리 축항 기성회가 조직된 이후에 홍보용으로 제작된 엽서에는 청초호의 옛사진이 나온다. 이 사진 속에서 속초리 2등도로 우회노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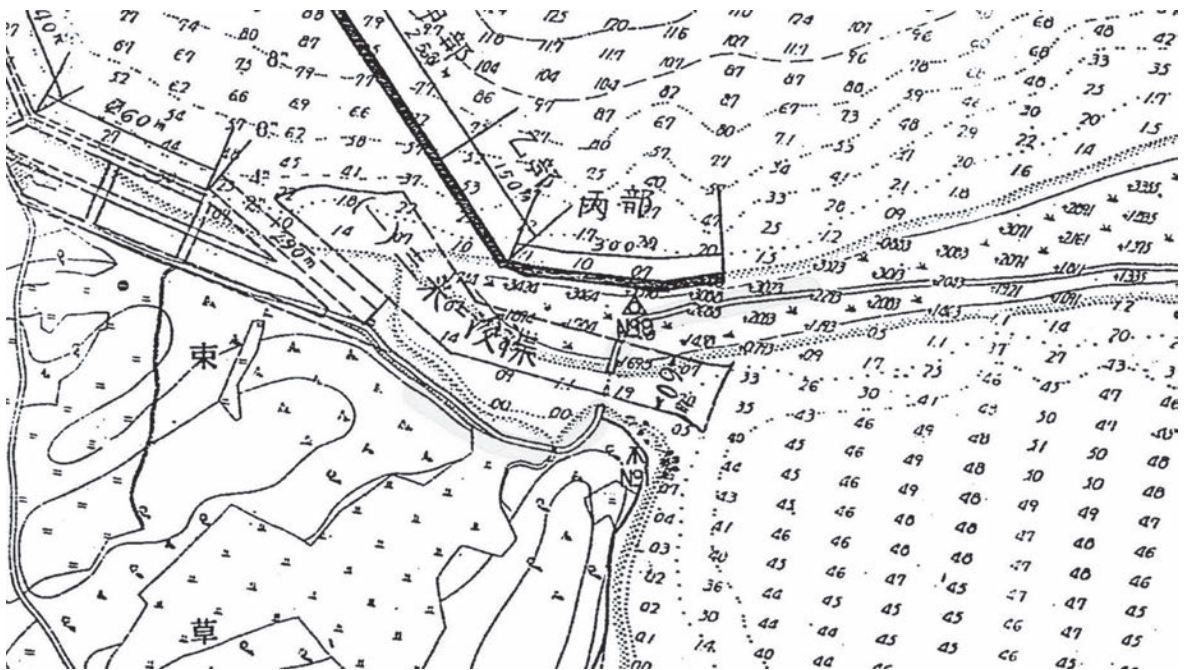


1929년경에 만든 홍보엽서 사진 속에 나오는 청초호 하구 풍경.

속초항 수축을 촉구하는 홍보엽서에 실린 사진에서 청초호 하구 모래톱을 잇는 다리가 보인다. 1918년 지도에 나오는 원산-양양간 2등도로의 본 구간이다. 길이 내뻗은 청초호 동편 모래 해변으로 길이 이어져 있고, 청초호 물길을 건너는 목조 교량이 보인다. 육안으로 봐도 교량 폭이 좁아 사

람 한둘이 지나갈 만한 교량이다. 청초호에 정박한 작은 선박들이 목조 교량을 지나 바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만약 이 구간에 교량을 건설하려면 감히 당시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대규모 공사가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길이 하나 보인다. 사진 왼편 아래 호수변으로 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는 비포장 도로가 선명하다. 바퀴 흔적을 보더라도 그냥 사람만이 다닌 길이 아니라 우마차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다. 이 도로는 1918년 지도에 나오는 원산-양양간 2등도로 우회도로 구간과 일치한다. 사진 속의 도로를 오른쪽으로 연장하면 지도 속의 도선 위치와 연결된다.



1930년7월 실측해 제작한 속초항과 대포항 평면도에 나오는 도선장

1930년 7월에 실측해 제작한 “속초항 수축도”에도 우회도로가 선명하게 나온다. 대신 사진처럼 목조교량이 있던 2등도로 본 도로는 없어졌다. 원산-양양간 2등도로 속초리 노선이 도선운행 노선으로 변경된 것이다.

본래 청초호 하구에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목조 교량이 있었으나 자동차나 우마차 등은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런 사유로 자동차나 우마차 통행을 위해 속초 청초호 하구에는 일찍부터 도선이 운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도선이 지금 운행되는 갯배이다.

그렇다면 속초 갯배 도선은 언제부터 운행된 것으로 봐야할까? 해당 지도의 인쇄 발행일은 1918년 10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은 1915년, 제판은 1916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는 도천면사무소가 중도문리에 표시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양양군 도천면사무소는 1916년 5월 24일자로 중도문리에서 대포리에 이전했다. 1916년 이전에 지도 제

작을 위한 측량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백년이 넘는 1915년에 이미 청초호를 건너는 도선인 속초 갯배는 운행되고 있었음을 당시의 지도가 말해주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긴 세월 운행해 온 ‘역사적 유물’을 타고 청초호 물길을 건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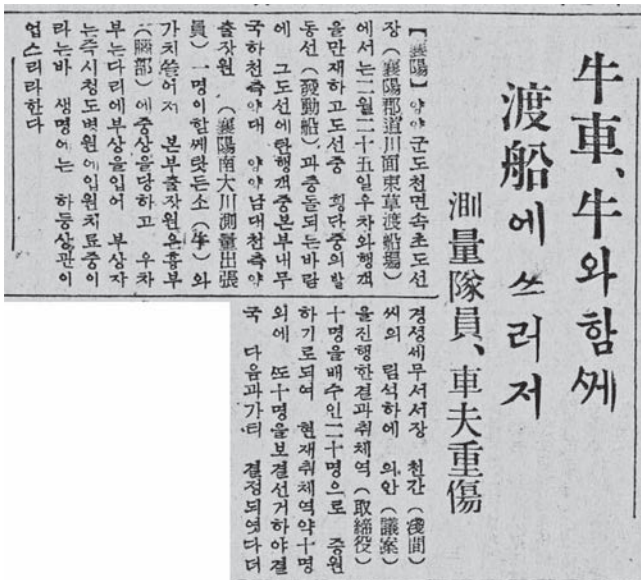
3. 속초항 개발 후에도 도선 운행

면에서 운영하며 해마다 입찰 / 동해북부선 개통으로 이용객 줄어

1930년대 들어 도선이 운행하던 속초항은 근대적인 어항으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1932년 11월 6일 기공식을 갖고 착수한 속초항 수축공사는 5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1937년 3월 30일자로 준공을 마쳤다. 아울러 2차 속초항 수축공사가 진행되어 1940년대에 이르러 지금의 구수로와 속초항이 완성되었다. 속초항이 당시 강원도 최고의 신흥산업이었던 수산업 전진기지로 개발된 것이다.

속초항이 개발된 이후에도 속초도선은 계속 운행되었다. 오히려 청초호 수로에 쌓인 모래를 퍼내는 공사를 통해, 원활한 도선 운행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매일신보에는 속초도선과 관련해 두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일제강점기 속초도선 운행을 확인해주는 신문기사는 1930년 처음 속초도선의 존재를 보도한 부산일보 기사와 함께 모두 3건이다.



1937년 3월 3일자 매일신보 2면 6단에 실린 도선 사고 소식

牛車, 牛와 함께 / 渡船에 쓰러져 측량대원, 차부(車夫)중상

[襄陽] 양양군 도천면 속초도선장(東草渡船場)에서는 2월 25일 우차와 행객을 만재하고 도선 중 횡단 중의 발동선(發動船)과 충돌되는 바람에 그 도선에 탄 행객 중 본부 내무국하천측량대 양양남대천측량 출장원 1명이 함께 탔던 소(牛)와 같이 쓰러져 본부 출장원은 흉부(胸部)에 중상을 당하고 우차부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부상자는 즉시 청도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라는 바 생명에는 하등 상관이 없으리라 한다.

- 1937년 3월 3일자 매일신보 2면 6단

청초호도선 입찰

[襄陽] 양양군 속초면에서는 2등도로를 연결하는 청초호도선 입찰을 지난 1월 25일 오전 12시 동면(同面) 사무주임 입회하에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자 25명 중 최고 6백6십7원11전으로 동면 노리(蘆里) 김흥기(金鴻起)씨로 낙찰되었다. 기왕에 도선료(渡船料)만 하여도 면(面)수입이 1천8백여원에 달하여 노던 것이 기차(汽車) 개통 후로 통행인이 희소(稀少)하여 이와 같이 3분의 2 이상이 감액(減額)되어 면(面)수입에 다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다.

- 1939년 2월 7일 매일신보 3면 6단

신문기사를 보면 갯배는 당시 ‘속초도선’ 또는 ‘청초호도선’으로 불렸다. 1930년 부산일보신문에도 ‘청초호도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선에는 우마차와 사람을 함께 태우고 운행했다. 도천면(속초면)에서는 해마다 입찰을 통해 도선 운영자를 선정했다. 1937년 12월 동해북부선이 개통되어 속초면에 속초역과 대포역이 들어서면서 도선 운행객이 1/3로 대폭 줄어들었다. 속초역과 도선장까지는 직선거리 7백여m 거리에 불과했다. 1937년 신문에는 도천면, 1939년 신문에는 속초면이 나온다. 1937년 7월 1일자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면사무소를 옮기면서 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도선 수요가 많을 때 도천면에서는 입찰을 통해 1년에 1천8백여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다. 1926년 발간된 양양군 도천면에서 발간한 “면세일반”에는 도천면의 1925년 1년 세입 총액이 5,164원이라고 나온다. 12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1938년경 도선비 수입 1,800여원은 도천면 전체 세입의 1/3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1936년 10월 3일에 작성된 양양군 양양면의 국고보조요청서류를 보면 양양군의 중심면인 양양면의 세입 총액은 11,089원이다. 도천면의 도선비 수입은 양양면 1년 세입총액의 16%에 달한다. 속초도선에서 걷어드리는 도선료가 양양군 도천면의 큰 수입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 2월 7일 매일신보 3면 6단에 실린 도선 입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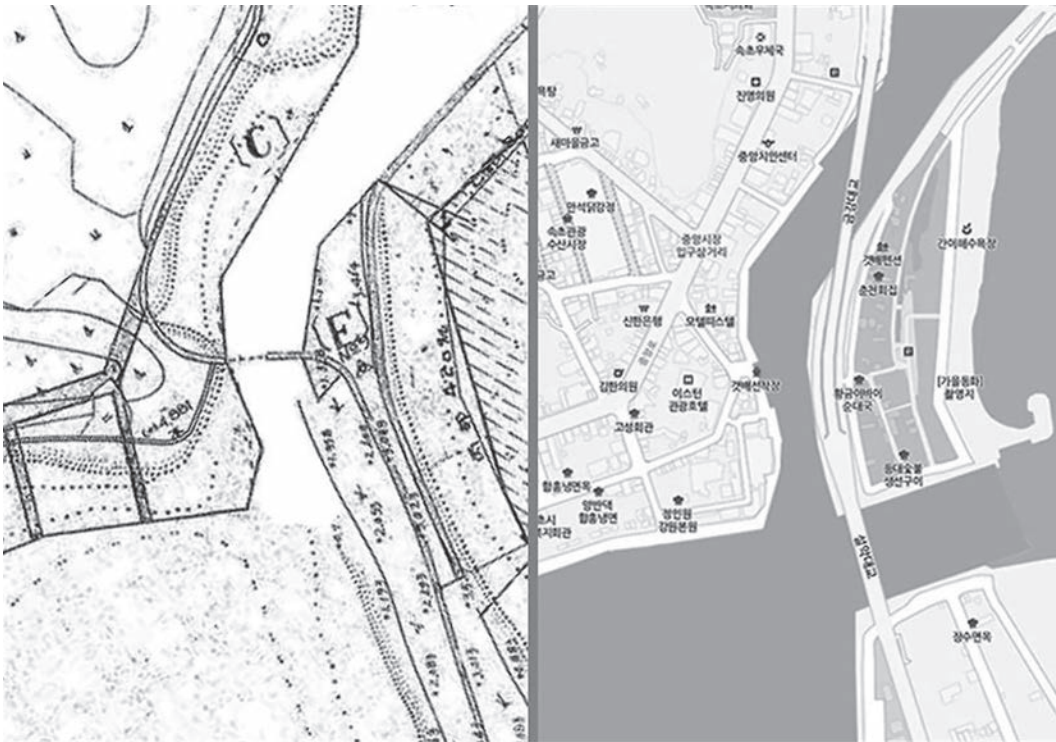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 후 인공 시절에도 갯배가 운행되었다. 이는 지역 원로들의 구술로도 확인되고 있다. 2012년 속초 부월리 출신인 최창영 전속초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내가 6,7살 때 기억이 나는데 당시 버스가 다녔는데, 흰 버스예요. 나무를 때고 돌리는 버스였지요. 그 버스가 지금의 7번 국도로 다니지 않고 청호동으로 해서 갯배를 타고 청초호를 건너서 시내로 갔어요. 해방 바로 전 일입니다.

나룻배(갯배)가 지금보다 컸어요. 당시 갯배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버스까지도 실었어요. 그때 갯배 구간이 50~70m 밖에 안 되었어요. (생략) 당시 철도는 완전히 개통되어 있었어요. 동명동에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갯배로 건너갔던 기억이 나요. 갯배는 일정 말기에 버스까지 실을 정도로 활성화된 운송수단이었지요. (생략) 갯배 크기가 그 버스 하나에 옆에 사람들이 같이 탈 정도였습니다.”

- 2012년 2월 27일자 설악신문(제1045호), 구술정리 엄경선

1940년대 초에 구수로와 구수협 어판장, 청초호 북쪽 호안의 모래톱에 항만을 조성해 매립하는 제2차 속초항 수축공사가 끝났다. 당시 속초도선 갯배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1939년에 작성된 “속초항 수축공사 국고보조신청서”에 나오는 공사계획도면과 지금의 지도를 비교해 보았다. 도선장의 위치는 두 지도가 거의 일치한다. 그 후 구수로는 준설과 매립, 교량 개설 등으로 모습이 조금 달라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1939년 도면에는 지금의 7번국도 시내노선과 갯배 사잇길이 선명하게 보인다.



왼편 지도는 1939년 작성한 “속초항수축공사 국고보조신청서”에 포함된 속초항 2차 수축계획 도면의 일부. 쉬운 식별을 위해 수로 안에 있던 모래톱 표시는 삭제. 오른쪽 지도는 네이버 지도 캡처화면.

해방 후 인공 시절에도 도선은 계속 운행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도 운행되어 피난길에 이용하기도 했다. 2016년 작고하신 노광복 전속초문화원장은 2011년 속초시박물관이 발간한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사진집 마지막에 갯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갯배에 대한 기억은 1948년이 처음이다. 어머니를 따라 밧독재를 넘어 외옹치(대포)를 다녀 오곤 했다. 그 당시는 인민공화국 치하였고, (중략) 또한 이 길은 일제 당시부터 국도로 사용한 길이라고 하며, 6.25와 1.4후퇴 때에도 우마차와 차량을 운반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후 속초도선 갯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2등도로가 지나가지만 주민이 거의 살지 않았던 모래톱 청호동 아바이마을. 그곳에 월남 피난민들이 들어와 자리잡고 살기 시작했다.

4. 한국전쟁 중에 다시 운행된 갯배

2015년 이용객만 39만명, 속초 최고의 문화유산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속초에 월남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아바이마을에 정착한 실항민들은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폭 1백m의 수로를 건너야 했다. 하지만 예전에 운행되던 도선은 전쟁 중에 소실되어 없어졌다.

아바이마을에는 이북에서 배를 타고 피난 온 주민들이 많아 정착 초기에는 배를 타고 수로를 넘나 들었다. 갯배 운행 초창기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 2014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도시민 속조사보고서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청호동”의 내용을 인용해 정리해 보자.

청호동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수로를 건너기 위한 수단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때부터 김영학이란 사람이 요금을 받고 거룻배를 운행했다. 김영학씨는 손을 다친 탓에 ‘조막손’이라고 불렸다. 형태가 제법 갖춰진 갯배는 1952년 4월에 탄생했다. 미 군정의 대리운영을 맡은 1군단 민사처에서 목재 및 자재를 지원하여 갯배를 건조했다. 이전의 거룻배는 승원 인원이나 물건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손수레를 신지 못해 상당히 불편했다. 새로 만든 갯배로 손수레와 자전거를 같이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갯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1961년 속초읍에서는 갯배 한 척을 더 제작해 2대의 도선에 대해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았다. 이를 재향군인회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했다. 갯배 운영은 속초시 승격 후 속초시의 관리하에 두었다가 1988년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당시 청호동개발위)에 관리를 위탁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갯배 운행과 관련해 다른 기록도 있다. 1991년 발간한 『속초시지』에는 “김영학씨의 거룻배 운행이 속초도선의 효시”로 “민정 이후 속초읍이 김씨로부터 갯배를 인수했다”고 했다. 2000년 발간한 『속초시 거주 실항민정착사』에서는 “민정 이후인 1955년 처음으로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구장 김무림)에 위탁 운행하다가 1961년에 칠성조선소에서 한척을 더 만들어 정식 도선업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지회장, 마장건)에 위탁운영을 했다”고 했다.

도선 운영과 관련해 속초시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을 보면, 1963년 1월 1일 속초시장 서리 김치룡씨 명의로 “속초시 도선 사용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시 승격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도선운영조례가 포함된 것이다. 조례를 보면 도선 이용료는 1회 이용시 사람은 1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는 20원, 자전거는 2원, 우마차는 4원, 손수레(손구루마)는 3원 등이다. 이 도선조례는 1968년 6월 한차례 개정되었다가 197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다. 재향군인회에서 도선경영허가를 얻어 운영하기에 도선경영 규제권한이 없어 폐지한다고 했다.

한동안 도선 운행과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인 2017년 12월 29일 속초시가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에서는 청호도선은 속초시장이 관리하며,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상에는 갯배의 이름이 ‘청호도선’이다. 갯배는 일제강점기에는 ‘속초도선’ 또는 ‘청초호도선’으로 불렸으며, 현재에 이르러 ‘청호도선’으로 이름지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운행한 도선이나 1950년대 초창기 갯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안타깝게도 당시 사진은 없다. 일제말기 운행된 도선은 1척으로 우마차 4대를 실거나, 25인승 중형버스와 옆에 사람 몇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중에 새로 운행된 갯배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 7번국도 우회노선이 개통된 이후로 자동차까지 실을 필요가 없었다. 1953년 무렵 속초의 사진을 찍은 미군 폴 뷰포드 벤처가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한 사진 속에 갯배로 추정되는 도선이 보인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10여명 타고 있고 나즈막한 뱃머리가 보인다. 지금의 갯배와는 사뭇 모습이 다르다.



미군 사진작가 폴 뷰포드 벤처 사진, 속초시립박물관 제공

갯배의 모양은 계속 바뀌었다. 최초의 갯배 이후에도 1961년에 추가로 제작되었고, 이후에는 1975년, 1998년, 2017년에 새로 제작했다. 처음에는 목선이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FRP로 재질이 바뀌었다. 지금은 지난해인 2017년 11월 15일 이후로 새로 제작된 갯배가 운행되고 있다. 운행 초창기 사진 속의 갯배에는 난간이 없다. 손수레와 사람을 가득 실은 갯배는 위험천만해 보인다.



2010년 속초문화원 주최 장릉사진공모전에 출품해 입선한 전창선씨의 갯배 사진.

1960년대 후반에 찍은 사진 속의 갯배에는 나무로 만든 난간이 등장한다. 1967년 9월 20일자 경향신문 3면에 나온 갯배사진. 사진 설명에는 “1원짜리 나룻배-속초항을 오가는 고철 나룻배는 영세어민들의 생명선이기도 하다. 뱃삿 1원도 아까와 함부로 타진 않는다. 건너편 오징어건조장에서 서너뭉음을 사서 머리에 인 여인. 그게 언제 팔릴지 얼마나 쪼가 나올는지.”라고 했다.

갯배 요금은 1원에서 1968년에 2원으로 인상됐다. 지금은 지난 2017년 인상되어 소인 3백원, 대인 5백원이다. 예전에는 청호동 주민만 갯배요금이 면제됐는데, 지금은 확대되어 속초시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갯배는 몇 편의 영화 속에도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배우 김혜자와 정동환이 나오는 영화로 1981년 상영되어 큰 인기를 끈 ‘만추’에 생생하게 나온다. 이 때 운행된 갯배는 난간이 목조가 아닌 철구조물로 바뀌었다.

초기의 갯배는 로프를 이용해 손으로 끄는 형태였다. 그러나 로프가 자주 끊어져 강철선으로 바뀌



1981년 상영된 영화 『만추』에 나오는 갯배

었다. 지금은 강철 줄을 갈고리로 걸어서 끌고 있다.

2000년 『가을동화』 방송 이후부터 갯배 이용객은 다시 급증했다. 2001년 18만여명, 2002년 14만여명, 2003년 15만여명이 이용했다. 2010년 이후에는 더욱 늘어나 2012년 29만여명, 2013년 31만여명, 2014년 35만여명, 2015년 39만여명이 이용했다.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갯배 운행의 역사. 갯배는 같은 장소에서 1백년을 운행해 왔다.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2001년 7월 4일부터 몇 달 동안 교량공사 때문에 갯배 나루 동쪽 2백m 지점으로 옮겨서 운행하기도 했다.

전국 해안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선인 갯배. 지난 1백년 동안 청초호 수로를 수없이 넘나들던 갯배는 속초의 도시 역사와 함께 해왔다. 주민의 애환이 함께 녹아있는 속초 최고의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속초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손으로 끄는 이 낡은 구닥다리 교통수단인 갯배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속초 실향민 문화 현황과 속초사자놀음

김 성 하 (속초사자놀음보존회 회장)

1. 들어가는 말

속초에는 실향민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모래위의 텃밭을 일군 실향민의 삶이 있다. 실향민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만든 문화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었다. 속초 청호동, 동명동 등대 밑, 고성 등 실향민이 모여서 새롭게 만든 마을과 문화가 지역의 대표 문화가 되었다. 다시 한번 속초에는 실향민이 있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있으며, 그 중심에 속초사자놀음이 있다.

속초사자놀음이라는 단어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왜 속초사자놀음인가. 국가 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이 있는데 왜 속초사자놀음인가. 이런 질문은 지난 몇 년간 이어졌다.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자놀음을 남한에서 최초로 공연한 곳이 속초이다. 그 속초의 예인이 서울의 예인들과 만나 북청사자놀음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로 만들었다. 그 속초의 예인이 실향의 한을 달래고 문화의 전승을 위해 90년대까지 설악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에 북청사자놀음을 공연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90년대 중반 이후 체계적인 사자놀음 전승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호동 실향민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향민 문화는 속초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다. 속초사자

놀음은 함경도 피난민이 연행하던 놀이에서 시작하여 2천년대 이후 속초에 정착한 그들의 자식세대가 연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는 그렇게 앞세대를 극복하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간다. 과거와 현재가 문화로 소통하고, 그 속에서 미래를 바라본다.

북청사자놀음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사자놀음으로 이어지는 속초의 사자놀음 계보를 통해 실향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실향민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향민 1세대의 문화가 그들의 후손인 2~3세대에게 전승되고, 속초시의 중요정책이 되어 속초의 대표 문화콘텐츠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실향민 문화의 조성과정과 실향민 문화 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인섭 전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의 논문 <지역 축제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속초 실향민문화축제를 중심으로>는 실향민 문화가 어떻게 속초의 대표 문화콘텐츠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과 실향민 문화내용, 실향민 문화를 활용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그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속초의 실향민 문화를 살펴본다.

2. 속초 실향민 선행연구

실향민의 정의는 광의와 협의의 개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1910년 일제강점에 따라 경제적 굶주림과 전시강제 동원 등 식민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 일본, 하와이 등 세계 각지로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뜻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납북인사들

을 뜻한다. 하지만 오늘날 실향민은 8·15 이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월남한 자와 분단 후 남한에 정착한 북한 출신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¹

속초 거주 실향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민속조사 결과물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기는 1990년대 이후 장정룡²교수의 연구에 의해서이다. 장정룡 교수는 90년대에 발간된 2권의 책을 통해 속초 실향민의 민속과 생활문화를 정리한다. 『속초의 향토민속』(1992)에서는 함경도 실향민이 고향에서 하던 민속문화를 속초 일대에서도 연행한 ‘북청사자놀음’의 전승과정을 연구했다.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1998)에서는 실향민 문화의 전승지로 청호동을 설정하고 변천사와 의례전승, 신앙전승, 기예전승, 생활전승, 구비전승 등의 민속문화를 정리했다. 또한, 청호동의 방언 특징과 청호동 소재 방송자료도 수록하여 실향민 문화를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실향민 문화 전승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 건립을 이끌어내고, 북청사자

1.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실향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0856&cid=46634&categoryId=46634>)

2. 장정룡 교수(강릉원주대 국어국문과)의 속초지역 실향민 관련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장정룡, 김무열, 속초문화원, 1998),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장정룡 외, 속초문화원, 2000). 이밖에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자 조사·연구」(속초시립박물관, 2007), 「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개발」(속초문화 23호, 속초문화원, 2007), 「강원지역 이북도민 정착사」(속초시립박물관, 2009), 「속초 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속초문화 26호, 속초문화원, 2010), 「속초사자놀음 전승·보존체계 연구」(2011),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적 의미」(속초문화 30호, 속초문화원, 2014)

놀이 전승과 돈돌날이 공연 등 속초의 실향민 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귀옥은 속초 청호동과 전라북도 김제 용지농원 정착촌의 월남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경험에 의해 형성한 정체성을 집중 분석했다.³ 이 논문에서는 실향의식을 가진 '반공전사'라는 이미지를 가진 월남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정착촌 월남인은 다른 지역 출신 정착민이나 원주민과 교류하며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용시켜왔다. 또한 정착촌을 자신의 고향으로 수용하며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경험과 정체성을 통해 살펴본 월남인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성격의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 배경과 생활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보이는 집단이다.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화신으로 등장한 월남인의 이 같은 정체성은 대도시 월남인이나 엘리트층 월남인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것으로 정착촌의 월남인들은 다른 생활 경험 속에서 다른 성격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즉, 월남인 집단의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처한 구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출현적 정체성'⁴인 것이다. 이 연구는



고향상실의 정서에만 머물던 실향민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실향민 2~3세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배은석⁵은 2017년 속초의 실향민문화 정체성과 계승적 의미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다. 그 자신 실향민의 자식으로 실향민 정착촌인 청호동에서 공동체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한 것이다. 실향민 문화촌이 있는 속초시립박물관은 실향민 문화와 기억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여 에코뮤지엄적 관점에서 중핵박물관의 요소를 보인다. 상설 전시장에 '피난민문화:속초인의 민속, 어울림의 문화'를 전시하고 야외 전시장으로 실향민문

3. 김귀옥(1999),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논문

4. 김귀옥은 출현적 정체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출현적 민족성(emergent ethnicity) (Yinger, 1985)에서 빌린 개념임. 출현적 민족성은 개인이나 민족집단이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 문화적 속성

에 따른 정체성을 획득하여 성원들간의 본래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개념은 민족 집단이 처해 있는 상황, 즉 거주조건이 다른 민족 집단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거나 혹은 공통의 작업에 집중해 있거나 하는 구조적 조건들이 민족성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김귀옥;17)

5. 배은석(2017), 「에코뮤지엄의 관점에서 본 지역박물관의 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 pp.163~185

회촌을 운영하며, 교육프로그램에 실향민 문화를 주요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초 시립풍물단이 사자놀이 등 실향민 공동체 문화를 연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속초시립 박물관은 에코뮤지엄에서 말하는 중핵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에코뮤지엄의 일상과 철학이 실향민 공동체의 기억과 보존과 만나다면 속초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또 다른 논문은⁶ 속초시의 실향민문화 축제가 한국전쟁과 분단, 실향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분석했다. 저자는 실향민문화축제에서 발견한 문화콘텐츠 중 전쟁 시기의 가요와 북청사자놀음, <이산가족 찾기 사진 영상 전시회>에 주목한다. 전쟁 가요가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였듯이 실향민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은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형문화유산 분야 학술지인 '국제 무형문화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에 「속초사자놀음: 북한 실향민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이행과 전승」이라는 논문도 등재했다.⁷ 이 논문은 속초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의 사자놀이 명칭 변화의 과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은 이북에서 피난 온 청호동의 실향민들이 고향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했던 전통 연희이다. 남한에서 무형문화재가 된 이후에도

속초의 실향민들은 함께 북청사자놀음을 놀았다. 북청사자놀음은 2005년 실향민 2세대들이 전승하면서 '속초북청사자놀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속초사자놀음'으로 변했다. 이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1세대 실향민들이 스스로를 '북청사람'에서 '북청에서 온 속초사람'이라고 규정하다가 실향민 2세대들이 자신들을 '속초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양상과 맞물려서 나타난다. 이같은 변화양상에는 실향민공동체의 자기정체성의 변화와 무형유산의 연관성, 문화유산의 진정성, 무형문화유산과 인권의 상호 관계 등 무형문화유산의 주요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배은석의 연구는 기존의 실향민 문화원형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에코뮤지엄을 제시하고 실향민 문화축제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장정룡의 실향민 문화원형 발굴과 김귀옥의 사회문화적 분석이 배은석에 의해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로 변화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성인은⁸ 속초시 청호동에 사는 이북 출신의 청호동 1세대와 2세대 말의 사용과 문화적 의미를 분석했다. 함경남도 출신 피난민에 의해 형성된 청호동에서 함경도 방언인 청호동 말은 핵심적 문화적 가치로 집단 내부적 가치를 드러내는 언어이데올로기이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은 '청호동말', '이북말', '북청말', '함경도말', '아바이말'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지니는데 이같은 결과는 개인이 속한 시대와 사회적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실향민 1세대에게 청호동 말은 집단의 절대적 특성이자 바뀔

6. 배은석(2017), 「실향민문화축제에 나타난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실향의 기억」, 『인문콘텐츠』 47호, 인문콘텐츠학회, pp.231~257

7. 신호송(2018), 「속초사자놀음은 남북간 문화연결 고리」, 『대학저널』 2018. 8. 2

8. 김성인(2015), 「아바이 말 그리고 나의 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수 없는 ‘핏줄’에 비유되는 반면 2세대들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상황변이어이다. 마지막으로 속초북청사자놀이 같은 지역 전통공연에서 연희자들은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속초북청사자놀이의 꺾쇠가 청호동말을 사용하는 것에서 다른 지역 공연과 차별화하고 민속놀이의 전통성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가치로 여긴다.

이밖에 속초시립박물관은 실향민의 삶과 생활문화를 조사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자 조사·연구」(2007)는 속초시 거주 실향민의 피난과 정착과정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한 연구보고서이다. 방문에 의한 구술조사 227명과 함께 41명의 실향민 영상을 촬영하여 구술조사는 물론 영상조사도 함께 한 점이 특징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속초시 실향민의 피난과 정착과정의 통계가 나올 수 있었다. 이 보고서 이후 2008년에는 강원지역은 물론 서울·경기·인천지역 이북도민으로 조사를 확대하였다. 「강원지역 이북도민 정착사」(2009)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북도민의 노력과 역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제1장은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의 모습, 피난민의 정착과정을 통한 취락구조, 경제활동 등을 수록하였고 제2장은 속초 수복탑, 갯배 등 실향민의 생활문화와 민족예술, 이북도민 정착마을 현황을 수록하였다. 제3장은 이북도민의 정착이 강원도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과 남북 교류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속초사자놀이 전승·보존체계 연구」(2011)는 속초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의 전승과정과 보존체계를 연구하고, 그 특징을 통한 보존전승 대책, 지역기관·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여 실향민 1세대의 북청사자놀이를 ‘속초사자놀이’으로 계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실향민 정착과정

속초는 조선후기까지 인근 양양군 소속 해변가에 위치한 작은 단위의 마을에 불과했다. 이러한 속초가 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규모를 키우게 된 이유는 한국전쟁 후 이북 출신 실향민의 급격한 유입때문이었다.

속초의 취락형성 과정을 통해 속초로 실향민이 유입된 배경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를 보면 속초는 사진리, 속진리, 부월포리, 대포리, 웅진리, 물치리 등 해안 절벽에 입지한 어촌 또는 포구와 논산리, 상도문리, 하도문리 등 농촌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인구 분포를 보면 농촌보다 어촌의 인구가 훨씬 많았고 특히 사진리, 현재의 영랑동과 동명동 인근이 속초의 대표 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초반인 1917년에 발행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 의하면 속초는 4개 축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를 잇는 선, 부월리-논산리-노리를 잇는 선, 장항리-토왕성리-정리를 잇는 선, 장천리-사진리를 잇는 선이다. 내물치축인 쌍천, 부월리는 청초호, 장항리는 설악산, 장천리는 영랑호를 끼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기 면사무소는 중도문리에 소재하였고 대포항은 속초지역 물자와 유통 중심지 역할을 했다.⁹ 대포항은 1908년부터 기선이 운항되어 타 지역과 인적, 물적 교류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수산

9. 옥한석(2000), 「속초의 지리적 특성과 피난민의 취락형성과정」,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pp.129~131

업 발전을 선도했다.¹⁰

쌍천유역의 중심지와 함께 조선시대 이래 포구로서의 기능을 존속하던 속초항이 대포항을 능가하게 된 것은 1932년부터이다. 최초의 속초항 수축공사는 1932년 시작해 1937년 공사를 종료하였다. 속초항 수축공사 완공에 이어 동해북부선 철도개설로 양양역과 속초역이 개설되고 1939년 양양철광이 개발되면서 속초항은 전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속초는 대포항에서 지금의 속초항으로 중심이 옮겨가게 된다.¹¹

속초항의 개발로 인해 속초는 1937년에서 1942년 사이에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1930년대 이전만해도 농업인구가 많았던 속초의 이러한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병참기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때 속초에는 군수품에 군납될 쇠고기 통조림공장 등이 많이 생겼는데 청호동 지역에 해방 직전까지 5개의 수산공장이 있었다.¹² 이러한 공장의 건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청호동에 기본적인 전기 등의 시설이 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지금의 청호동은 ‘반부평’이라고 불렸다. 청초호 부근 부월리에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만한 터가 없게 되자,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¹³

한국전쟁 직후 월남인 정착촌은 지리산 소개 지역 피난민촌, 나환자촌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

로 200여개가 있고, 1960년대 후반에는 135개소가 남았다고 한다. 1998년 조사에서는 월남인 정착촌 수가 36개이며 총 2,296세대가 거주했다. 정착촌 수로는 전북이 가장 많고 경기, 강원, 전남 순이지만 세대수로 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데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가장 많은 월남인이 집거한 탓이라고 보았다.

청호동에 월남인이 정착한 것은 한국전쟁 후 새로 수복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 이양되기 전인 1952년경으로 나온다. 군정은 피난민 정착촌을 위해 주택건설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1.4후퇴 당시 남하한 월남인은 귀향하기 쉬운 사주인 청호동 모래밭에 피난민촌을 건설하게 된다. 초기에는 현재 청호동 1,2,3통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을 불규칙하게 지었다. 재료는 미군용선이나 청호동 앞바다에 떠다니던 것으로 드럼통, 박스 등을 주워 집을 지었다. 군정 당시에는 식수원이 없어 청초호 건너 중앙동의 우물을 이용했고, 빨래터가 없어 인근 다른 마을로 가야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이들 피난민의 대부분은 어업을 하며 가족끼리 배를 타고 내려왔기에 이북의 마을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직 구체적인 행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청호동 주민들은 자신의 이북 고향마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신평마을, 앵고치마을, 짜고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된 것이다.¹⁴

청호동은 초기 개척촌으로 유리하였지만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산업적 기반이 약했다. 조선소와 공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경작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호동의 정착민은 이후 속초항 부근으로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정착촌이 생

10. 속초문화원(2017), 『속초와 수산업』, pp.143

11. 임경선(2017), 「일제강점기 속초항은 어떻게 개발되었나」, 『설악신문』, 2017. 8. 14

12. 김귀옥, 앞의 글, p.93

13. 속초문화원(2000), 앞의 책, pp.132~135

14. 속초문화원, 앞의 책, pp.132~136

기게 된다. 동명동 등대밑(삼호마을), 감리교회 밑 단천마을, 시내 산비탈 등이다. 또한, 당시 1군단 공병단의 지원으로 현재 중앙시장, 청학동, 교동택지가 마련되어 피난민을 수용하기도 했다. 6.25 이후 속초지역에 유입된 난민은 48,722명으로 나타났는데 배를 이용하여 월남한 사람들은 주로 청호동 지역에 거주하였고 육로를 통하여 피난한 사람들은 학사평 지역에 해방촌을 이뤘다. 청호동 거주 월남민의 출신 지역은 함경남도가 92%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70%가 어업에 종사하였다. 반면 학사평 해방촌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정전 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¹⁵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직법’에 의거하여 양양군 속초읍은 민정으로 이양되었고 1963년 속초시로 승격하였다. 이때 속초시 인구규모는 10,864가구 55,619명이었는데 청호동은 1,264가구 6,329명이었다. 속초시는 월남인의 비중이 큰 도시로 1975년에는 실향민 비율이 74%(53,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점차 실향민(1~2세대) 비율이 줄어들면서 2000년대에는 약 34%정도가 실향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호동이 피난민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는데, 수복탑의 조성이나 ‘고향심기운동’도 그렇다. ‘고향심기운동’은 1975년 청호동 실향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인데 이것이 속초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¹⁶

이처럼 속초는 양양군의 작은 항구에서 일제강점기 속초항의 개발로 인구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북 월남인

이 대거 유입되면서 도시규모를 키우게 된다. 속초가 실향민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4. 속초의 실향민 문화자원

청호동은 함경남도 출신 실향민이 정착하면서 이북의 생활문화와 속초의 토착민속이 함께 내려오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청호동 실향민의 고향인 함경남도 해안과 속초 청호동의 해안이 비슷한 지형적 요소를 갖고 있어 이들의 생계가 어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요소의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섞여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청호동 실향민의 문화 중 현재까지 전승되는 문화는 북청사자놀음이다. 함경도 북청지역의 사자놀음은 한국전쟁 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정월대보름 전날부터 마을공동체 놀이문화의 일환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용왕굿, 수살굿 등의 신앙전승이 있지만 실향민 고유의 문화라기보다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속초 고유의 실향민 문화라고 하기 어렵다.

청호동 실향민의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또 다른 분야는 언어와 음식, 주거 사회조직이다. 주거형태는 이미 재개발이 많이 되어 실향민문화촌에서나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골목과 가옥의 형태는 초기의 모습이 보인다. 청호동 방언은 선행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함경도 방언과 속초방언이 뒤섞이며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¹⁸

속초의 실향민 문화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15. 속초시립박물관(2007),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 보고서』, pp.36~38

16. 속초시립박물관(2007), 앞의 책, pp.13~17

17.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p.26

18. 장정룡·김무림, 앞의 책, p.27

분야는 음식이다. 함흥냉면, 아바이순대, 명태순대 등 함경도 음식과 오징어순대처럼 속초 실험민이 만든 새로운 음식, 식해 등 짓같이 청호동 고유의 공동체 문화와 함께 전승되고 있다.

연대회에 선보이며 알려지게 되었고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속초에서는 김수석이 1970년 기예능보유자 제84호로 지정받고는 속초에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1982년 동우전문대학생들

을 지도하였고, 1988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북청출신 10여 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험민 1세대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1991년 강릉원주대 장정룡 교수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김수석과 김

하륜을 현지조사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57년 당시의 원형을 기록한 『속초의 향토민속』(장정룡, 1992)을 바탕으로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이 재탄생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2005년 속초북청사자놀음의 민속문화적 가치에 주목하여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함경도 청년회, 일반 시민과 함께 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결성하여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존회의 이름도 속초북청사자놀음으로 하여 속초에서 연희된 북청사자놀음을 명확히 하였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2015년 ‘속초사자놀음보존회’로 명칭을 다시 변경한다.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이 실험민 1세대에서 2~3세대로 넘어가면서 속초를 고향으로 생각한 이들이 속초의 사자놀음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현재 속초사자놀음보존회는 회원 40여명이 참가하여 매년 10여차례 이상의 공연을 펼치는 속초의 대

실험민 문화자원 분류

구분	자원명	자원내용
놀이문화	북청사자놀음	함경도 북청의 전통문화로 속초에서 처음 공연
	돈돌놀이	함경도 대표 민요로 청호동 주민 공연단
상징물	수복기념탑	실험민의 고향염원을 담은 탑
	갯배	청호동과 시내를 연결하는 무동력 운반선
음식	식해	가자미, 햇대기 식해
	순대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순대
	냉면	명태회가 나오는 함흥냉면

1) 놀이문화

가. 북청사자놀음¹⁹

〈북청사자놀음〉은 삼국시대의 기악(伎樂)·무악(舞樂) 이래 민속놀이로 정착되었다. 주로 대륙계·북방계인 사자무가 민속화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1930년대까지 북청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14일부터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사자놀음을 하였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속초 정착 실험민들이 처음 놀았다고 한다. 1957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이 연희자인 김수석과 통소 명인 김하륜이 함경도 실험민과 함께 북청도청 건립을 위한 공연을 하였다. 이후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래 여러 차례의 민속놀이 경

19. 속초시립박물관(2011), 「속초사자놀음 보존·전승체계 연구」 내용 요약.

표적인 문화단체가 되었다. 또한, 사자놀음 전승 외에도 ‘사자탈 만들기’, ‘사자저금통 만들기’ 등의 문화체험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으로 속초시 대표공연에 ‘사자놀음’을 소재로 한 ‘청사초롱 이야기’ 등의 공연도 제작했다.

나. 돈돌날이

‘돈돌날이’는 함경남도의 대표 민요로 부녀자들이 바닷가나 강변 또는 산에 모여서 춤을 추고 놀면서 부르던 춤과 노래이다.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돈돌날이의 ‘돈돌’은 돌고 돈다는 뜻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다시 자주국가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²⁰

속초에서는 그동안 북청사자놀음과 함께 청호동 주민의 민속놀이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속초의 신천무용단이 청호동 실향민의 구술을 받아 청호동 주민과 일반주민 모임을 통해 작품으로 제작했다. ‘돈돌날이’ 고유의 가사와 춤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향의 고향에 맞는 현대식 공연으로 재탄생한 것이다.²¹

2) 상징물

가. 수복기념탑

한국전쟁이 끝나고 속초 지역은 수복되었으나 남쪽으로 피난하였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속초 지역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피난민의 희사금, 속초읍 부담(육백만원), 군부대의 차량 지원으로 1954년 5월10일 건립하였다. 탑의 재원은 좌대 폭4m, 좌대 높이 7m 모자상동상 높이가 2.55m 등 총 9.55m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쟁 유적비 탑의 상례인 군경 조각동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조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이다.²²

이 탑의 맨 위에는 보따리를 끼고 있는 어머니와 북녘하늘을 가리키는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고향땅을 바라보는 모자 조각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더 이상 고향땅으로 올라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 모자 조각상은 당시 1군단소속 군인인 박철성씨가 제작했으며,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모자상부(母子像賦)는 당시 1군단소속인 장호강 시인(한국참전시인협회장)이 지었다.²³

수복탑은 1983년 4월 27일 파손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다시한번 성금을 모아 그해 11월

20. 국립민속박물관, 「돈돌날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topic>)

21. 김인섭(2014), 「실향민문화 알리미 ‘돈돌라리아」, 『설악신문』, 2014. 09. 29

22. 속초시(2005), 「제7편 문화예술」, 『속초시사』, pp.1425~1426

23. 속초문화원(2015), 『속초의 문화상징 50』, pp.53~54

에 제막식을 갖는다.

수복탑은 실향민 도시 속초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수복탑이 세워진 곳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던 광장이었다. 설악문화제와 망향제가 수복탑 광장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수복탑 광장은 사라지고 수복탑만 남게 되고 그 상징성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나. 갯배

갯배는 중앙동과 청호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기록에 의하면 일제강점기부터 두 곳을 이어주는 도선이 있었다고 한다.²⁴

1918년 지도와 1930년 신문 기사를 통해 청초호 하구에서 자동차와 우마차를 실어나르는 도선이 운행되었던 것이다. 갯배가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된 것은 청호동에 실향민이 정착하면서 부터이다. 청호동에 이북 실향민이 정착하여 시내 중앙동의 우물이나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갯배를 이용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청호동 주민들은 중앙동을 불과 50m 앞에 두고 5km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조막손 영감(김영학, 金永學)이라고 불린 이가 주업으로 갯배를 운영했다. 그러나 청호동민들의 불편은 여간 아니었다. 특히 자전거나 손수레의 이용은 더 어려웠다. 그 후 민정이 되면서 1955년 초 속초읍에서 지금 모양의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청호동)에 관리를 맡겼다.

1961년 1척을 더 만들었고(칠성조선소 제작),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가 위탁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갯배가 등장한 것이다.

갯배가 있다고는 해도 청호동 사람들의 생활은 제약되기 일쑤였다. 수해가 나거나 해일이 일어 청초호 물이 불면 갯배의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청호동 사람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극심한 생활 불편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중앙시장을 오가며 생선장수를 하는 아낙의 발도 묶이고 아이들의 등하교도 멀리 조양동을 돌아가야 했다. 1988년 갯배는 청호동개발위원회에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35인승 FRP선으로 바뀌었다.²⁵

2000년대 들어 갯배와 갯배나루는 TV드라마 ‘가을동화’와 TV오락프로그램 ‘1박2일’로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견어물가게와 횃집, 생선구이집, 오징어순대집 등이 들어서며 일약 관광 변화가로 도약한 것이다. 현재도 갯배나루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갯배의 변화는 문인들에게 당혹감을 준다. 청호동을 만들고 지켜온 실향민의 ‘서사’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은유하는 ‘서정’으로 변해가는 것이다.²⁶

이제 청호동의 서사는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3) 음식문화

가. 식해

속초는 함경도 출신 실향민이 정착하면서 식해문화가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식해의 종류로는 가자미식해, 명태식해, 도루묵

25. 속초문화원(2015), 『속초의 문화상징 50』, pp.145

26. 김종현(2017), 「지역문인의 시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청호동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속초문화원, p.168

24. 엄경선, 「속초 갯배 100년의 역사를 찾아서」, 『설악신문』, 2018. 8. 20

식해, 햇떼기식해 등이 있다.²⁷ 가자미식해는 주로 겨울철에 만드는데 함경도 가자미식해는 조와 엿기름, 소금, 가자미, 무, 생강, 고추, 마늘을 넣었다. 청호동에서는 횡대기식해를 많이 담가 먹었는데 가시가 많았다고 한다. 소금국을 젓물 또는 지리국이라고 하는데 횡대기 지리를 이북사람들이 명절이나 마을잔치에 많이 해먹었다고 한다.²⁸

식해를 주로 만들어 먹는 지역은 동해안의 함경도와 강원도다. 추운지역인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지 못했고 태백산맥이 바다 가까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은 논농사에 적합한 토지가 적어 밭농사로 잡곡을 짓는 지대가 많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가 국내의 대표적 가자미식해 생산지가 된 것도 많은 함경도 피난민



이 속초에 정착한 후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해 한 집 두 집 담가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한다.

속초시는 지난 2015년 ‘특산물 명인제’를 도입해 가자미식해 분야의 김송순(86·여) 씨와 명란젓갈 분야의 박영진(56) 씨를 선정했다.

27. 엄경선(2017), 『시간여행 속초음식생활사』, 속초문화원, p.356

28. 속초문화원(2015), 『속초의 문화상징 50』, p.51~52

속초시 청호동에서 30여 년간 젓갈업체를 운영해온 김송순씨는 함경북도 북청이 고향인 실향민이다.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운 전통방식으로 가자미 식해를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먹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김송순씨의 가자미식해는 각종 언론매체에 다수 출연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명인으로 선정됐다.²⁹

나. 순대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원래 함경도지방의 고유음식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에 의해 속초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거듭난 실향민 음식이다.

아바이순대는 북방형 순대이다. 조선 세종 때 4군 6진 개척 등으로 함경북도가 조선으로 편입되면서 여진족의 음식문화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마을잔치가 있을 때 대창에 속을 채운 순대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 순대를 아바이순대라고 한다. 아바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어르신을 뜻하는데, 한국전쟁 때 월남한 실향민에 의해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아바이순대가 대외적으로 처음 등장한 곳은 속초에서 진행한 제1회 설악산 꽃축제 행사장에서였다.³⁰ 이후 아바이순대는 속초의 대표 실향민 음식으로 사랑받았다.

돼지를 이용하는 아바이순대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순대를 만들어 먹었다. 여름에는 오징어, 겨울에는 명태를 이용했다. 특히,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은 수산도시 속초

29. 송원호, 「속초시 가자미식해, 젓갈 명인 2명 선정」, 『강원도민일보』 2015. 5. 20

30. 엄경선, 앞의 책, pp.327~328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징어와 명태를 이용해 순대를 만들어 먹게 되었다.

아바이순대와는 달리 오징어순대는 선지 대신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 있어 오징어의 쫄깃한 육질감과 야채의 담백한 맛이 어울린 별미로 손꼽힌다. 오징어순대는 속초의 역사를 그대로 담은 음식으로도 평가받는다. 속초는 실항민과 수산업, 관광산업이 어우러져 만든 도시인데 오징어순대는 실항민의 음식이자 수산물이며 관광붐이 일어나면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³¹ 오징어순대가 속초의 대표음식으로 알려진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다. 1979년 5월 31일 세종대학 부설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국제관광공사 주최 행사인 <한국전통음식 및 향토음식 전시 겸 시식회>에서 설악산의 향토요리로 오징어순대가 선보였다.³²

명태순대는 실항민에게 설 명절 음식 중 최고로 꼽히는 음식이지만 명태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고, 몇몇 식당에서 특별메뉴로 판매한다.

다. 냉면

북한에는 함흥냉면이 없다. 함경도 특산음식으로 감자농마 국수가 있다. 함경도 실항민이 감자농마국수를 발전시킨 음식이 오늘날 함흥냉면으로 불린다. 함경도 농마국수는 회가 없어 나오는 '회국수'와 회를 무쳐 나오는 '비빔국수'가 있는데 속초에서는 회국수를 알아줬다. 초기에는 생선회로 가자미를 사용하다 어획량이 적어지면서 명태회를 쓰고 있다. 이러한 점이 속초 고유의 함흥냉면 맛을 만들어냈다.³³

속초식 함흥냉면은 다른 곳과 많이 다르다. 함경도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기질과 어부의 음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자리에 앉으면 뜨거운 장국이 나온다. 몸이 뜨끈해지며 절로 해장이 된다. 차가운 육수를 냉면그릇에 담고 매운 양념장으로 비벼먹는다. 뜨겁고 차가우며 매운 음식이 속초의 함흥냉면이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장국을 다시 냉면그릇에 부어 남은 양념을 모조리 먹는다. 속초만의 독특한 방법이다.³⁴

5. 마무리하며

속초의 실항민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맨손으로 제2의 고향 속초를 만들기 위한 1세대 실항민의 고난이 있었다.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오늘날 실항민 문화의 원형을 이룬다. 속초사자놀음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변천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생활문화이다.

속초문화원은 속초시의 지원으로 속초사자놀음보존회를 지원하고 있다. 속초사자놀음은 북청사자에서 속초북청사자에 이어 실항민의 새로운 정체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향 잃은 실항민의 관점이 아니라 모래 위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든 실항민의 모습이다. 속초사자놀음이 속초문화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항민 문화의 활성화, 그 중심에 속초사자놀음이 있다.

31. 엄경선, 앞의 책, p. 338

32. 엄경선, 앞의 책, p. 342

33. 속초문화원(2013), 『속초의 문화상징 50』, p.63

34. 박찬일, 「박찬일의 음식만행-속초 함흥냉면」, 『중앙일보』, 2018. 7. 21

제30회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2019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로 박무웅(1942년생, 남자), 이인제(1974년생, 남자)님이 선정됐다. 속초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속초시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접수하였으며, 문화예술부문에 2명, 사회복지 및 효행부문에 1명, 장애인부문에 1명 등 총 4명이 추천됐다.

문화예술

박 무 웅

돌감자장학회장 (전 속초문화원장)

오랜 기간 속초의 문화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해왔으며 문화원장으로 재직시 향토문화 발굴, 시민교육 등 속초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장애인

이 인 제

장애인 체육선수

다수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속초시를 빛내고, 장애인 선수 육성에 희생봉사하였음



2019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로 박무웅(1942년생, 우측), 이인제(1974년생, 좌측)님이 선정됐다.

2018년 속초문화원 임원명단

구분	성명	경력	비고
원장	김계남	속초문화원장	
이사	김은미	검찰청 법사랑위원회 위원	
이사	김주철	교차로 신문사 대표	
이사	문은희	속초시상공회익소 부회장	
이사	박민호	속초민예총 회장	
이사	백영철	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이사	유수경	전)국제로타리 3730지구 은솔로타리 회장	
이사	유종완	설악봉사회 회장	
이사	이정용	아름방 한복 대표	
이사	장용근	축제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사	정봉재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이사	정성수	아사모 회장	
이사	주경범	(주)삼정수산 대표	
이사	지태수	갯마당 대표	
이사	최용석	보배이에스씨 대표이사	
이사	최춘미	생활한복 연구가	
이사	탁명원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이사	탁홍순	전)영랑동장	
이사	한명옥	전통타악연구원 두두리 대표	
이사	한춘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	
감사	허우린	전)속초시사회복지협회장	
감사	이상호	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사 (당연직)	김대홍	속초시 문화체육과장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

비매품/ 무료



03680

9 791196 593018

ISBN 979-11-965930-1-8

